

태초부터 살아 역사하시며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이 땅에서의 삶을 성경대로 사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월 17일 (토) 제 151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성경이 '권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뉴스위크 신년호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발적 보도...공식 사과 야기

'성경의 권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계몽주의 이후 모든 '권위'는 이성 심판 앞에 서야 했다. 이성에 대한 강조, 역사주의의 대두, 비판적 사고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회제도와 정치제도를 발전시켰다. 21세기에 주어진 '권위'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18세기 이후 약 200년 동안 성경의 권위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는 대단히 중요하다. 기독교는 성경의 권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독교가 '경전종교'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계시'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인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다. 즉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이 진리를 얻기 위해 해탈을 하거나, 각성해서 깨닫거나, 대자연의 이치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의존한다. 따라서 성경이 '권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초대교회로부터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박해와 순교를 감수하면서 성경을 지켰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를 외치며 다시 한번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옹호했다. 한마디로, 성경은 기독교의 전부다!

그런데 2014년 성탄절 선물(?)은 '뉴스위크'지가 보내왔다. 바로 커버스토리로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뉴스위크는 바로 "성경: 너무 왜곡되었기에 그것이 바로 죄(The Bible: So Misunderstood It's a Sin)"라는 제하로, 커트(KURT EICHENWALD) 기사는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그것도 문맹 수준이면서 정치나 동성연애, 낙태와 같은 민감한 쟁점들에 성경을 인용한다고 광장히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했다.

먼저 뉴스위크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2015년 신년 호 커버스토리로 지난 달 23일 온라인을 통해, 도발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축하하는 들뜬 분위기를 한순간에 잠재웠다. 그만큼 커트의 일방적인 기사는 상식을 뛰어넘는 도발성 기사로, 온통 과장된 정보들로, 크리스천들을 도매값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동성 결혼 반대, 공립학교 기도 부활, 진보 일색의 민주당 정책 노선들에서 미국을 구원 그리고 야외 풋볼구장에서의 대규모 기도 집회 등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크리스천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꾼이며, 카페에서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성경 말씀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씀만을 선택해 이용하는 '카페테리아 크리스천들'이라고 신랄하게 헐뜯음을 한다.

커트 기자에 따르면, 이들은 "근본주의자들"이다. 자신들의 편견이나 신념들을 보충 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지도 못하면서 성경



기독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므로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다.

말씀들을 왜곡하며, 성경 번역들을 수정해 성경의 권위를 지켜나가는 종교적 합리주의자들이다. 결국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필요한 구절만을 취사선택하고 있기에 미국 사회는 점점 더 "성경문맹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보면, 지구촌 기후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노아에게 더 이상의 홍수가 없다고 약속했고; 구약의 모세 율법은 바로 미국 정부 체제이며; 창조론은 공립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며; 시리아 반군을 돕는 것은 종말이 이르렀다는 신호라는 모든 논의들은 복음주의적 정치가들이나 이를 지지하는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논의들이 모두 처음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성경에는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단언한다.

물론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2012년 퓨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처럼 온전한 성경 말씀에 충실한 미국인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커트는 복음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허례와 위선에 가득찬 바리새인"이라고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비판한다.

(3면으로 계속)

국제 정치, 경제 상황 새 국면 맞는다!

WSJ, JP모건 투자전문팀이 예측하는 '2015 정치, 경제 상황 전망 보도'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재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다. 사람들의 투자를 통해 장, 단 기간에 이익을 창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에, 미국내 3%안에 드는 엘리트들이 소수 정예로 움직인다. 이들에게 항상 새해 전망은 바로 투자자의 초점 반경과 예상하지 못한 기회와 위험을 파악하는 데 보탬이 된다.

한국 증권가에서도 소위 "짜라시"라고 불리우는 사실 정보의 정확도는 정치와 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실려 있어 도움이 된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P모건 최고 책임투자팀에 '2015 세계경제전망'을 물었고, 그 가상 시나리오를 보도했다(Some Possible Market Surprises for 2015: J.P. Morgan Private Bank identifies unexpected opportunities and risks. Could a tech bubble form?).

북한 내 쿠데타로 통일...경기 후퇴 직면 달러 약세 장기금리 하락세·IT 거품 아시아금융 홍콩 대신 싱가포르 상하이 부상

1. 유럽과 일본이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계속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5%대에 그치면서 정체된다.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장기 금리는 계속 하락한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다시 2% 아래로 내려앉는다. 투자자들이 다시 '캐리트레이드'(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나라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에 나서면서 신흥시장 통화는 상승세를 보인다.

2. 2015년 초에 미국 원유 가격이 바닥을 찍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속도가 붙고 안정되다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타이트한 노동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라진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정책상 '뒷북'을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정책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시장을 놀라게 한다.

3. 통화정책이 예상을 벗어나면서 미 증시가 저조한 성적을 낸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실행하는 경기부양책은 긍정적인 경제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투자 심리도 반등한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쳐 유럽, 일본, 신흥시장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면서 미 달러의 가치는 두드러지게 상승하지 않는다. 미 증시는 여타 선진국 및 신흥시장에 비해 실적이 저조해진다.

4. '비이성적 과열'이 다시 나타나면서 IT 거품이 형성된다. 자금이 두둑한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보다 광범위한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데 실패한다.

(3면으로 계속)



박해현장 속 선교의 새 문이 열린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조진모 목사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진희 목사



선교 칼럼
GMS 선교총무 김호동 목사



21세기 선교패러다임
박신욱 선교사

미주 교회연합 기도성회

"HEAL OUR LAND 이 땅 고쳐 주소서"



일시 : 2015.1.22(목)~25(주일)
22일(목) 7:30pm
23일(금) 5:30am, 7:30pm
24일(토) 6:00am, 7:30pm
25일(주일) 1,2,3,4부

장소 :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달라스 지역	2015년 2월 18일(수)~20일(금)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훈 목사)
뉴욕 지역	2015년 3월 18일(수)~20일(금) 뉴욕프라이미교회 (김남수 목사)
워싱턴 DC 지역	2015년 4월 15일(수)~17일(금)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목사)
시카고 지역	2015년 5월 13일(수)~15일(금) Lake View 장로교회(강민수 목사)
시애틀 지역	2015년 6월 24일(수)~26일(금) 시애틀형제교회(권준 목사)



강사: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



강사: 정인수 목사
(애틀랜타장로교회 담임)



강사: 김남수 목사
(뉴욕프라이미 담임)

주일예배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성령집회 8:00pm
은혜기도원 TEL:951-277-1188 | 11985 Indian Truck Trail, CA 92883



주 관 : 미주한인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후 원 : JAMA, OC교협, OC 목사회, OC 평신도 전도연합회



시론

올해라고 뭐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늘 새해는 다짐의 해입니다. 마음의 다짐과 의지는 매해 되풀이 됩니다. 지난 한해도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는 거 같아 마음 한켠이 쓸쓸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도 이 모저모로 우리를 지켜주시거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발견하면 그 쓸쓸함에 감사가 가득 채워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들이 할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마 7:7).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마 6:33)

사람이 할 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해달라는 것은 신앙의 나태, 게으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조차 사람이 다할 수 있다는 것 즉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은 신앙의 교만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20년전 일입니다. 큰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담임선생님이 1학년 아이들에게 주신 첫 번째 숙제가 각 가정의 가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슴에 품어둔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훈으로 까지는 정리가 안된지라 이 기회에 신앙의 가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평소 애용했던 '작은 일에 충성하라!'를 가훈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늘 자기를 과대평가하여 평생 "큰일을 맡겨주면 잘할 텐데, 아직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어" 하고 항상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런 시시한 작은 일을 할 수 있냐"고 늘 큰소리만 뽐낼 거러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입니다. 저는 중등부 다닐 때 목사님 설교중 "게으름도 '와'이라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으르고 약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약하고 착한"의 기준이 "게으름과 충성"이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또 무엇이든간에 즉 그 자리가 아버지든, 자녀이든,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자기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보다 큰 일을 맡기시고 더하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나 또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인생을 살리라 다짐해 보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2015년을 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보다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제주도에도 조랑말을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2명의 사랑스런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좀 크자 할아버지에게 서로 조랑말을 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얼마나 난처한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작은 병아리 1마리씩을 주면서 잘 길러 보라고 했습니다. 큰 손자는 모이를 쪼아 먹으며 이리저리 돌아 다니는 병아리와 들판에 있는 조랑말을 한번씩 바라보고는 한숨만 씁니다. 둘째 손자는 열심히 병아리에게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성실히 돌봅니다. 1주일에 지나자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각기 병아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큰 손자의 병아리는 기운도 없고 생기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합니다. 작은 손자의 병아리는 기운도 생생하고 생기도 돌고 줄곧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바쁩니다. 할아버지는 조랑말을 둘째 손자에게 줍니다. 큰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큰 손자에게 말합니다. '병아리도 잘 키우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조랑말을 잘 키울 수 있겠느냐?'고. 2015년도 새해입니다. 올해라고 뭐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다면 세상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동물학자들은 말과 소의 눈에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길들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보다 훨씬 큰 소와 말을 우리가 어찌 당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문제가 블랙홀이 되어 빠져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거기에 해결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201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세상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시고, 주어진 맡겨진 작은 일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최상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보다 큰일을 맡기시고 더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는 그 결과가 무엇이든 후회나 아니라 감사가 채워집니다.

박해현장 속 선교의 새 문이 열린다!

오픈도어스, '2015 기독교박해 순위발표...북한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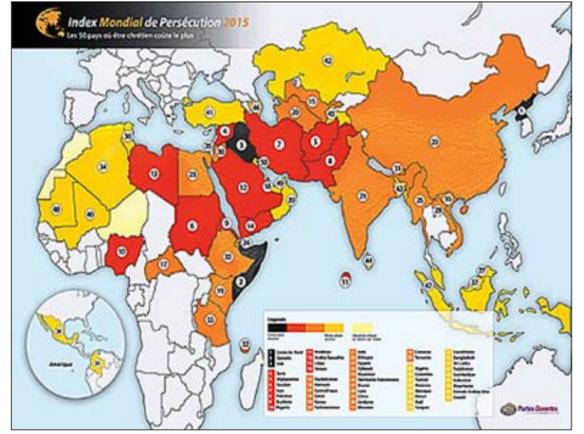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의 현장을 증거하고 있는 오픈도어스(Open Doors)의 2015년도 기독교 박해순위(World Watch List)가 발표됐다('Not Forgotten: The Top 50 Countries Where It's Most Difficult To Be A Christian: Open Doors says 2014 saw the worst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the 'modern era' - but not because of violence).

이 순위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박해지수를 나타내는 유일한 자료이며, 1991년부터 매년 제공돼왔다. 오픈도어스는 정밀조사를 통해 한 명의 크리스천이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자유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개인·가족·지역 사회·국가와 교회 생활에 관한 항목들과 여기에 폭력의 정도를 함께 측정해 순위를 내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국가로, 2002년 이후 13년째 연이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전역에서 김정일의 삼촌 장성택 국방부위원장의 처형과 관련하여 만명 이상이 숙청돼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상위 10개국을 북한,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파키스탄, 에리트

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크리스천 비율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2011년에 발생한 시리아 내전 이후 시리아에서는 지금까지 약 7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난민이 됐고, 2014년도에는 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란(7위, 작년 9위)도 크리스천들에 대한 법적인 압박이 더 심해지면서 박해지수의 증가와 함께 순위가 상승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의 또 다른 중심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리스트에 포함되었고, 라오스와 스리랑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년보다 박해지수가 상승했다. 중국(29위, 작년 37위), 말레이시아(37위, 작년 40위), 인도네시아(47위, 작년 47위)에는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있지만, 정부와 사회 구조적인 압박과 통제가 여전히 심해 크리스천 제르바이잔(46위)은 몇 년 동안 리스트 밖에 있었지만, 이번에 리스트에 포함 됐다. 높은 범죄율로 잘 알려져 있는 멕시코는 특히 교회와 범죄 개선의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범죄 집단들이 교회를 자금 획득을 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크리스천들이 폭행과 살해를 당하고 있다.

작년보다 증가세... '이슬람극단주의'와 '독재주의'가 주원인 IS 등 극단주의 막기 위해 기독교와 이슬람 연합 움직임

레아, 나이지리아이다. 이중 수단,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가 작년보다 높은 박해지수를 기록하며 10위권 안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슬람 극단주의'는 상위 50개국 중 40개국에서 주요 박해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며, 그 다음으로는 '독재주의 편협성'이 주된 원인으로 북한을 포함한 상당한 국가에서 주요 박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50개 국가의 총 박해지수가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된다.

이라크(3위, 작년 4위)와 시리아(4위, 작년 3위)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난민이 됐다. 이라크에서는 여러 주들에서 이슬람국가(IS)가 칼리프 체제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 의해 난민이 됐고, 여성과 아동들이 납치를 당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 지하디스트(Jihadist) 단

리카 지역이다. 이러한 극단주의는 보코하람(Boko Haram)과 같은 지하디스트 단체들뿐만 아니라, 문화를 장악하려는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력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 리스트에서 박해지수의 높은 증가를 보인 12개의 국가들 중 8개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소말리아는 작년에 이어 2위이며, 수단(6위, 작년 11위)과 에리트레아(9위, 작년 12위)와 나이지리아(10위, 작년 14위)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수단과 에리트레아는 1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으며, 나이지리아는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올랐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약 65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북한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한동안 박해 상황이 개선되고 있었지만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 지역에 있는 12개의 국가들이 2015년

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종교 극단주의의 위험 가운데 있다.

남아시아의 인도(21위, 작년 28위)는 작년 5월에 힌두 근본주의 단체가 모체인 집권당 인도국회의 높은 증가를 보인 12개의 국가들 중 8개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특히 힌두 근본주의자들의 크리스천들에 대한 역계종 운동과 그 외 종교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38위), 터키(41위), 아

터키는 기독교에 대한 법적인 통제와 함께 크리스천들에 대한 무슬림들의 사회적 적대감과 압박이 심각하며,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자주 물리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 당국이 통제하고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박해를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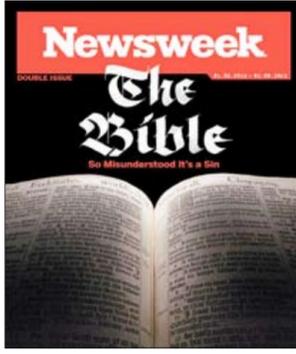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성경이 '권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1면에서 계속)
초기 기독교 역사와 신약에 정통한 리폼드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석좌교수인 크루거(Michael J. Kruger) 교수는 "뉴스위크의 보도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애국된 정보를 통한 도발적 선정적 기사이므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반론을 제기한다(A Christmas Present from the Mainstream Media: Newsweek Takes a Desperate Swipe at the Integrity of the Bible).



장에 과장을 더해"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성경 사본 복사 과정 (Overplaying Transmission Problems)
처음으로 성경이 기록된 사본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수많은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여기에 아마추어 서기관들이 복사했기에 실수가 분명히 있다.
크트의 정보는 한마디로 잘못이다. 2세기에 유행했던 위경 중의 하나(the Shepherd of Hermas)를 인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읽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사본 복사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서기관이라는 증거는 없다.
2. 공판복음서 안에서의 차이 (Overplaying Textual Variations)

뉴스위크지는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커트는 복음서 안에 나타난 2개의 주요 기사 차이를 도발적으로 알린다. 바로 마가의 결론부(16:9-20)와 요한에만 등장하고 있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7:53-8:11) 기사다.

처음에 쓰여진 기사들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도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 삽입된 사건으로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는 허구를 집어넣었다고 역지를 쓴다.

3. 영어 성경 번역들의 오류 (Overplaying Translational Issues)
영어 성경 번역들은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한마디로 전통적인 기독교 신념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조작된 번역이라고 주장한다.

4. 초대교회에서의 다양성 무시 (Overplaying Diversity in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였기에 통일된 교리들이 없다고 단정한다. 따라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교리를 결정하는 주역 중의 주역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니케아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 "신조(Creed)"를 콘스탄틴의 개인적 신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과장해서 말한다(정경 형성과정에서도 콘스탄틴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역지를 쓴다).

결론으로, 성경의 권위는 기독교 초기부터 도전을 받았다.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

력을 했다. 매 시대는 그 시대의 도전 앞에서 성경의 절대성을 주장했다. 교회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존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에 의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종교적 권위가 아니다. 교회 조직이나 교권에 의해 유지되는 강제적 권위와 다르다.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 성경을 진리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스스로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성경되게 하라'고 했고, 칼뱅은 성경의 진리는 최종적으로 '성령의 증거'에 의한다고 한 것이다. 교회가 진리를 만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성경 안에 있고,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이고 기독교다.

결국 커트 기자의 글은 한마디로 재난 수준의 사실적인 정보 부족과 실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빚어낸 억지 주장이자, 참소이다. 독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역사적 사실과 증거들의 나열로 만들어진 기사이지만, 어떠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없는 삼류 기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뉴스위크의 보도는 저널리즘의 정도가 아니다. 뉴스위크 편집진은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

소망 칼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기초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받던 시대였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더욱 곤란해졌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징계받을 것이 뻔하니 절을 해야겠지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었다. 오사카 근처 조그만 도시에 있던 교회당도 군대에 징발당했음은 물론 신사에 예의를 갖추라는 압력이 가해졌다. 이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남 보는 데서는 하는 수 없이 절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시즈코(齋藤) 아즈메리 한 분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그는 참으로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고 조용하고 침착한 아주머니였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때가 되었을 때 의연하게 양심을 굽히지 않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초가 있는 "참용이 있는 자"라 하였다.

미가 7:5-7을 보면 "너희는 너희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희 아내에게도 말을 조심하라 아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딸이 그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니 너희의 원수는 다투어인 너희의 식구가 될 것이라 나는 여호와의 구해 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강도가 살인을 하고 재물을 뺏아가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며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엄청난 패륜적 사건조차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미가는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이는 하나님 밖에 없다고 고백하였다(미가7:5-7).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구원은 불변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겠다.

1923년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 대지진 때 많은 건물이 무너져 버렸으나 간다에 있던 구세군 본부교회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건물은 당시 4미터를 파고 615개의 통나무를 박아서 지었는데 통나무 하나가 27톤의 중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건물의 기초가 튼튼한 것이 중요하듯 신앙도 기초를 든든히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나라의 기초, 가정의 기초, 교회의 기초도 바로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개인이 몰락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적 부패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타락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이런 현상만 보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현상 뒤에 있는 근본 원인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때마침 장군의 연설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다. "은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기초가 무너지면 개인이나 공동체는 부패하고 삶의 기초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망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함으로써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구축해야겠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의 기반을 든든히 세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꿈과 소망을 이루는 성도들 되기를 바란다.

국제 정치, 경제 상황 새 국면 맞는다!

(1면에서 계속)
투자자들이 미래의 '회기적인' 아이템을 찾아 나서면서, 판매 실적이 없거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IT기업으로 더 많은 자본이 흘러 들어간다. IT부문에 강력한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1990년대 말을 연상시키는 IPO 열풍이 분다. IT스타트업의 가치 평가액이 치솟다가 급락해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는다.

5. 유럽의 정치는 두드러지게 극단적인 정당으로 기운다.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대외부채 상환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탈퇴한다. 이탈리아에서

는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치가 대중영합적인 쪽으로 기운다. 이탈리아도 유로존에서 탈퇴한다. 스페인의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프랑스의 국우 정당 '국민전선'은 지방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모멘텀을 활용한다.

6. 영국 총선에서는 뚜렷한 승자가 없지만 국우 정당 '영국독립당'이 약진한다. 영국독립당은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를 밀어붙여 파운드화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운동은 독립에 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킨다.

7. 남미 전역에서는 '상황이 뚜렷

이 역전'된다.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은 보다 정동적인 경제 규제를 도입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유인한다. 아르헨티나 대선은 두드러진 경제 변화를 가져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얻는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재개되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신흥시장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

8. 홍콩 당국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 부활한다. 중국은 개입을 거부한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 이탈하면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한다. 부동산과 증시가 폭락한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해온 홍콩 대신 싱가포르와 상하이

가 부상한다.

10. 일본과 유로존의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 및 통화 가치 절하로 중국을 필두로 아시아 전역에서 중상주의적인 통화 가치 절하 움직임이 경쟁적으로 나타난다. 인도, 인도네시아, 동남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다. 아시아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아래로 끌어내린다.

(2면에서 계속)
중동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크리스천들 사이에 역사를 통해 생겨난 오래된 원한과 분열이 차츰 사라지고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슬람국가의 극단적인 움직임에 옹호한 무슬림 지도자들이 크리

스천들과의 협력을 시도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에 큰 이점들을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교회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 가운데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회가 좀 더 중국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중국을 새롭게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온전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양 정부들이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이례적으

로 종교 단체들과 연계해 일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은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문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www.rpts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5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5년 1월 23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5년 1월 24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5년 1월 26일(월) - 28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김혜천목사 (516)782-4564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기독교에 호의적인 황제 - (2) 콘스탄티누스 2세

기독교를 공인하고 니케아 신경을 만들어 대왕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콘스탄틴은 무려 30여년을 다스리며 나라를 기독교화 했다. 또한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헌신은 경이로웠다. 곳곳에 산재한 기독교 성지를 찾아다니며 유물들을 수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말이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남겨진 로마의 십자가 성당에는 한편 강도가 짙어졌던 십자가의 형들과, 주님께서 박하셨던 십자가의 대못, 그

리고 십자가의 명패, 또한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바위 조각 등등이 수집되어있다. 그 뿐인가? 마틴 루터가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는 스칼라(Scala) 계단(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기 위해 걸어가셨던 28개의 돌계단으로 가톨릭 교인들은 지금도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면서 올라가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고 있음)을 가져와 스칼라 계단을 만들게 했다. 그녀는 아들의 왕권을 이용하여 기독교를 전파하고

뿌리를 내리는 일에 놀라운 헌신을 했다. 그런데 그런 콘스탄틴 대제는 부상하는 페르시아를 향한 전쟁을 추진하던 중에 과로로 죽었으니 그 때가 337년이었다. 수많은 기독교도들은 그의 장수를 염원하였는데 말이다. 그의 죽음은 곧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권력의 속성이란 혈육에 대한 사랑이나 양보라는 단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왕후 파우스타와 사이에 세 아들이 있었다. 콘스탄티누스 2세는 20살, 콘스탄티우스는 19살, 그리고 콘스탄스는 17살이었다.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국을 삼등분으로 나누어 다스리도록 했다. 콘스탄티누스 2세는 갈리아, 부리타니아, 히스파니아를, 콘스탄스는 이탈리아와 아프리카를, 그리고 나머지 제국 동부를 콘스탄티우스가 다스리도록 했다. 340년에 콘스탄티누스 2세가 막내동생 콘스탄스에게 아프리카를 양도하려고 했으나 코우움을 치자 군대를 거느리고 진격했다. 그러나 전사함으로써 제국은 거대한 서방을 다스리게 된 콘스탄스와 동방의 황제인 콘스탄티우스 2세로

양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콘스탄스는 신학적으로 유명한 감독 아타나시우스의 편을 들었고, 형 콘스탄티우스 2세는 이단으로 기운 아리우스파를 지원하는 일로 묘한 갈등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방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막내 콘스탄스에게 형 콘스탄티우스 2세는 아리우스를 적대시하는 아타나시우스를 처벌하려고 했으나 동생 콘스탄스 때문에 행동에 옮길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를 다스리던 콘스탄스는 휘하 장수인 게르만족 출신 장군 마그네티우스가 봉급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살해당하고 그 자신이 로마의 황제임을 참칭했다. 이 일로 인해 어거스틴은 로마의 오스티아 항구에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장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뱃길에 막혀버리는 불편함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자 콘스탄티우스 2세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서둘러 강화로 끝내고 도나우 강 유역을 맡았던 베트라니오에게 항복을 받아냈다. 항상 위기는 전방의 장군들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후 마그네티우스와 3년여 동안을 내전을 벌여 그가 거느린

군사 3분지 1을 죽인 후 비로소 그를 결국 굴복시킬 수 있었다. 마그네티우스를 굴복시킴으로 그는 아버지 콘스탄틴 대제처럼 통일천하를 이룰 수 있었다. 그는 주도면밀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 성격은 돌다리도 두들려보고 건너는 조심성을 갖게 되었고 그런 조심성은 황제로서는 안성맞춤의 자세였다. 그래서 항상 자만하지 않고 주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 같은 군사적 자질은 없었으나 조직력과 또한 강한 책임감을 갖추고 있었다. 고로 체제의 안정에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었고 군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며 황제들이 가장 골치 아파했던 야전군을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보병들로 하여금 강한 기병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약체인 동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부상한 페르시아 군에게 밀리지 않는 강한 군사력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도모했다. 그는 건축학적으로도 유명한 건물을 남겼다. 즉 이스탄불에 있는 웅장한 소피아 성당은 그가 360년에 건축한 건물이다. 50만 명이 넘

은 인원이 동원되어 6년 동안 쉬지 않고 공사함으로써 완공을 보았다. 그 건물은 역사와 함께 많은 수난을 당해야 했는데 1204년에는 제 4차 십자군에 의해 점령당한 후 가톨릭 성당으로 바뀌었고, 1261년에는 다시 정교회 성당으로, 그 후 이슬람의 술탄이 점령한 후 또 이름을 바꿔야 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내부의 기독교적 그림들을 회칠한 후 이슬람의 그림으로 바뀌어 버리는 수난을 당해야 했다. 그 돔 꼭대기에 달린 이슬람을 상징하는 반달 장식의 조각을 보고 그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천국에 간 수많은 성도들은 뒤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황제였으나 종교적으로 정통인 아타나시우스를 거절하고 후에 이단으로 낙인찍혔던 아리우스를 쫓은 것은 오히려 티끌이었다. 그는 이교도 박해법을 제정했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신전의 파괴를 독려했다. 그는 자신에게 신학적으로 저항하는 아타나시우스를 끝까지 추적하여 죽이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9면으로 계속)

푸 / 른 / 초 / 장

오은규 선교사
(Mila Mission 대표)



얼마전 뉴스에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무너졌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다시 완공되어 개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당시 단 2대의 비행기로 3시간 만에 110층이나 되는 건물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곳에 다시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0여년 만에 15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완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집을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그 집을 허무는 데는 아주 쉽게 허무는 것을 봅니다. 가끔 TV를 보면 포드레인이나 다이너마이트 몇 개를 가지고 빌딩 하나를 쉽게 허무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우기는 정말 힘들어도 그것을 허물기는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왕이 어렵게 쌓은 신앙의 개혁을 단 한순간에 무너트린 두 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신앙의 전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 받은 15년은 무의미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

자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당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 내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인 400년의 사사시대가 왜 온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로 사사시기까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겨주어야 할 것을 전통과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피곤하지 않게 공부하며 새벽잠을 깨워 새벽기도 하는 전통, 나 쓸 것도 모자라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하여 드리는 이 열정, 이런 것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사람의 회심

때때로 우리는 나 한사람이 돌아선다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한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서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동화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졌나고 말하지 말라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아니하겠는가?/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졌나고도 말하지 말라네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를 탔을 때는 그 배안에 모든 사람들이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을 때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남겨주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해를 사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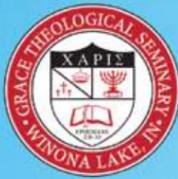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역대하 33장)

처음 나오는 히스기야왕의 아들 므나셋왕은 12살 때 왕이 되어 55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므나셋왕은 히스기야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 받은 후에 태어난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때에 와서 히스기야왕이 평생 바쳐 이루어놓은 개혁의 물결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왕이 없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 안팎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만들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였습니다. 드디어 6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 받은 15년은 무의미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므나셋의 아들, 아몬왕은 어떠했습니까? 22절을 보면 그는 아버지 므나셋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왕위는 히스기야에서 므나셋으로, 므나셋에서 아몬으로 잘 계승되었지만 반면 신앙은 전혀 계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왕 당대에 가졌던 좋은 신앙을 그의 아들과 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사2:7, 10). 우리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얼마의 물질이나 집이나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남

군대를 동원하여 치게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12절을 보면 므나셋이 고통을 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주 겸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17절을 보면 므나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한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줍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더이상 심각해질 수 없는 공립학교 성교육 시스템-Common Core STD

질은 어둠의 영적 흐름 속 3대 도시

세계의 경제흐름을 주도하는 뉴욕과 최고의 교육을 자랑하는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최첨단 기술개발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1)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들이며 미국의 심장고 두뇌,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들입니다. 2)미국에서 가장 도덕적, 윤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치열한 영적전쟁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3)사탄교의 헤드쿼터(HQ)가 바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위치하고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4)친동성애, 친이슬람, 성적 문란함과 가장 큰 반기독교 운동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도 더 심각하게 나쁜 성교육 교재 및 수업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Lafayette에 있는 Acalanes High School에 있는 십대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진 성교육내용이 나중에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매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13-14세 청소년들에게 Gender-bread(성별 빵)라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수업시간에 가르쳐졌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두뇌 쪽에는 "정체성identity"이라고 적혀있고, 심장heart에는 "성향orientation"이라고 적혀있고 사람의 팔에는 "표현expression"이라고 적혀있고 다리사이에는 "성Sex"라고 적혀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그림의

로 학생들이 "sex성관계"를 갖는다면 모두 해피할 수 있다"라는 황당한 교육 자료들을 자녀들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기막힌 일은 수업중 선생님은 "Are you ready for sex now?!"(지금이라도 성관계를 할 준비됐나?)라는 질문을, 비록 연습처럼 하는 수업이라고 해도, 겨우 13-14세 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며 자극적이고 포르노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성관계를 할 땐, 물로 된 lubricants나 콘돔을 잘 사용하고, 성관계를 가질 때 서로의 동의아래 해야 한다. 혹시 성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부끄러워 할 필요없이 그냥 '바지를 벗어도 되니? 지금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성관계 할래?'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가르치고, "성관계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성별'인지, 여자인

강사가 가르친 내용이라고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측 발뺌에 학부모들은 더 화가 났고, 학교측의 무책임함과 성교육을 고치지 않는 점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현재 PII라는 법적 단체에 소송까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 학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학생들의 고발로 몇 달 전에는 북카주에 있는 Fremont Unified School District에도 비슷한 사건이 터져서 큰 논란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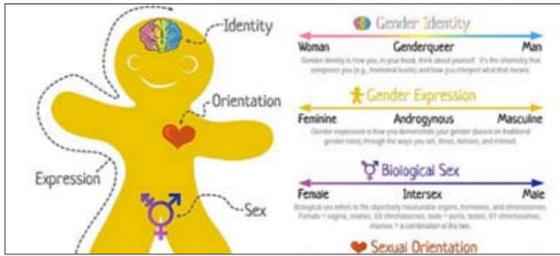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이루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들 2가지를 든다면 첫째, 정부에서 공립학교 교육을 통제하고자 전략적으로 Common Core STD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정치적 힘을 사용하

정부가 공립학교 교육 통제하려 전략적 시스템 활용 친이슬람, 친동성애, 문란한 성교육 자료들 의무화

American Bible Society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이 도시들은 작게는 97%에서 100% 전체가 반기독교적으로 변질된 도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시들은 가장 먼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공립학교의 교육이 점점 반기독교적, 비민주적, 반미국적 가치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정부가 통제하는 건강보험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한 지 얼마 안되어 이번에는 미국 안에 있는 공립교육을 통제하고자 전 지역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교육조건들을 따라가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뿐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정부가 각종 교육청에 밀어부치고 있는 Common Core Standard(기본 기초 공립교육)가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인데, Common Core STD는 수학, 영어, 역사 등 학생들뿐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들까지 혼돈스럽고 과목과 잘 어울리지 않는 주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초등학생에서 십대 학생들에게 까지 가르쳐지고 있는 R-Rated보



Gender-bread(성별 빵)에 의하면 "성향" "표현" "sex" 그 세 가지 모두 전 부입니다. 인간의 성품, 인품, 지, 정, 의 등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인간을 "성sexual" 한 사람으로만 그리고 있는 수업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한 수업시간의 해석이 더 더욱 기가 막힐 겁니다. 그림에 나온 글자가 흐려서 대중 설명을 드린다면 선생님들은 수업을 이렇게 이끌어갈때 훈련을 받습니다.

"학생들, 첫째 여러분의 두뇌를 통해서 정체성이 생기는데, 그 정체성은 먼저 내 심장에서 느끼는 '성별' 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둘째, 그 느낌을 통한 성별을 용감하게 표현할 때 '정체성'이 생겨난다. 셋째, 내 심장에서 느껴지는 성별

지, 남자인지를 우선 골라야한다"라고 가르치며, 차마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비도덕적인 단어들과 내용들이 수업시간에 초기 십대학생들에게까지 가르쳐진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계속되는 성별을 구분하고 성관계를 너무 자세히 부추기는 수업시간에 학생들마저 불편해 몇몇 학생들은 수업도중에 나오고 싶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방침 상 그 수업을 계속 들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 몇몇 학생들의 증언입니다.

이 일을 나중에 자녀들에게 들게 하고 화가 난 학부모들이 Acalanes Unified School District에 함께 찾아가서 항의하자 학교 측은 그 수업을 학교선생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Planned Parenthood의 초청

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교육물에는 친이슬람, 친동성애, 문란한 성교육이 의무화되어있다는 사실이 거듭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교육을 할 때는 safe-sex=free sex를 격려하는 교육이기에, 오바마 정부와 오바마케어와 가장 절친한 최대 낙태시술소인 Planned Parenthood의 대리인들이 학교에 초청되어 세미나 컨퍼런스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Planned Parenthood의 웹사이트에는 십대들만 들어가는 성교육 페이지에 "변태적인" 성관계를 매우 정상적이고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묘사해 이미 수백명의 십대들이 like를 누른 게 확인됐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나 대도시들의 공립학교는 더 이상 제대로 안전하지도, 공부를 잘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공부를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National Test Score 몇 가지만 비교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TVNEXT는 홈스쿨링이나 크리스천 학교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몇 년 투자로 자녀들의 평생이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주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llpc0316@gmail.com

Q: 저는 목회자로서 신년부터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실시코자합니다. 이것을 어느 선배 목사님께 커피 타임 중에 말했더니 충고하기를 교인들에게 제자훈련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인들이 지식이 늘어나 머리에 뿔이 나게 한다고 하는데 헛갈립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렌지카운티 K목사

A: 좋은 질문입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목사가 설교준비만 제대로 해도 많은 시간과 심적인 부담이 있는데 제자훈련까지 하려 한다고 하면 어떤 목사님은 말리는 분도 있습니다. 선배목사님이 제자훈련을 말리시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제자훈련을 진행하십시오. 제자훈련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그저 나라

바른 제자훈련으로 헌신된 성도 만들어

도 바꾸고 싶은 심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훈련시키는 목사가 기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변화되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훈련이 성공합니다. 목사가 변화되면 교인도 변화됩니다. 결과로 교회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목사님들과 대화중에 제자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대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신랄하게 짐을 튀기며 비판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자훈련으로 교인들을 너무 많이 가르치면 교인들의 머리에 뿔(?)이 납니다. 그리고 뿔이 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치받는 줄 압니까? 목회자야..." 그래서 목사를 치받게 되니 제자훈련하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에 대해 한국 교회 제자훈련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옥한흠 목사는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책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뿔이 나는 것은 목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는 지식적인 목적으로 가르치면 당연히 머리에 뿔이 납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대답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교만해서 머리에 뿔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절대로 머리에 뿔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데 훈련의 포커스를 맞추면 삶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면 배우수록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깨어지고 마음이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닮은 것을 목표로 하면 절대로 머리에 뿔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과거 제자훈련의 영감이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내 마음에 슬로건이 3가지 있었습니다. 1)왈터 헨리슨(Walter A. Henry)이 말한 것처럼 "좋은 제자(성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Disciple are made not born)) 2)네비게이토 창설자인 도슨 트로트먼(Dowson Trotman)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Know Him & make Him known)" 3)"질(Quality)이 양(Quantity)을 좌우한다. 질이 좋아 건강한 교회가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수적인 성장을 이룬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주일은 예배, 주중에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 3가지가 제자훈련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설교사역과 제자훈련사역이 그동안 저의 이민목회의 중심이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미조리주스프링필드에 위치한 PC USA에서 독립한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pringfield)에서 다음과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 격**
-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노선을 따르는 장로교목사 또는 장로교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으로 목회학석사 (Master of Divinity)이상학위를 소지하신분
 - 연령이 40세-50대 이신분
 - 3년이상 이민목회경력(부목사포함) 을포함하여 총목회경력이 3년이상되신분 (미국정규신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친기간을 이민목회기간으로 인정할수있음)
 - 2중언어(한국어/영어)가 가능하신분

- 제출 서류**
- * 이력서(한/영각 1부)
 - * 자기소개서(가족소개및가족사진포함)
 - * 최근 6개월내설교 2편(해당 CD/DVD)
 - * 최종학력증명서 와 목사안수증명서
 - * 목회비전 및 신앙고백서

제출 마감 2015년 2월 15일

제 출 처 * 우편: 청빙위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pringfield
1559 S. Grant Ave. Springfield MO 65807
* Email: kpcs.callingtoMO@gmail.com

- *기타사항:** 1.제출된서류는 비밀을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2.서류심사를 통과하신분께 개별연락 드립니다.
3.문의:청빙위원장 김태수장로 (417-894-8329)
청빙위원 김민숙집사(417-683-0551)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pringfield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록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 번은 해당사항에 0 표시를 하세요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라우제(LAUJE)



솔라웨시(Sulawesi)의 남서쪽 반도에 살고 있는 47,300명의 라우제족은 토미니(Tomini)족의 한 하위종족이다. 가까운 이웃들은 고론탈로(Gorontalo)족, 부울(Buol)족, 그리고 콰당(Kwandang)족이다. 토미니족 하위집단에는 라우제족 외에 톨리톨리(Tolitoli)족, 돈도(Dondo)족, 담펠라스(Dampelas)족 등이 있다.

옛날에는 모든 토미니의 언어들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었고, 각기 다른 언어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같은 언어의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각 종족들이 그들의 자신의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고 밝혀졌다. 많은 토미니들은 아마도 16세기에 이슬람이 출현할 때까지 각각 독립 상태로 남아있던 거대한 상업 왕국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토미니의 문화적 역사는 이슬람의 출현, 독일식민지시대, 일본점령기, 그리고 독립 후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토미니가 독일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슬람이 강하게 남아있다.

삶의 모습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에는 300여개의 다른 종족들이 모여 살며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다. 이 지역의 역사 역시 작은 왕국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져가기도 했으며 여러 왕국들이 방어와 정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합하기도 했다. 이 지역은 원래 토라자(Toradja) 사람들이 살던 지역으로 보여진다.

토미니족은 전통적으로 세습되는 족장과 그를 보좌하는 의회에 의해 다스리는 각각의 부족들과 함께 술탄국의 지배를 받았다. 토미니족 사회에는 왕족, 귀족, 평민, 노예 네 계급이 존재한다. 독립 이후

에 과거의 "라자스(rajas, 왕족)" 일부와 그 가족들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나머지 라자스는 상인이 됐다.

1950년대 후반에 솔라웨시(Sulawesi)의 젊은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분리의 운동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토미니 지역의 분리운동은 1960년대의 퍼메스타(Permesta) 반란으로 정점에 달했다. 그 후 수년 동안 그 지역은 물품을 전혀 만들지 못했으나 그 이래로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정향나무가 농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됐으며, 목재회사도 시작됐다.

라우제 연안 지역은 코프라(copra)와 야자나무 농장뿐만 아니라 정향 생산물에 매우 활동적이다. 많은 라우제족 사람들이 상업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벌목과 어부로 살아간다. 고지대의 라우제족들은 쌀과

옥수수(사고(sago, 야자의 한 종류))를 경작한다. 그들은 또한 라판(야자의 일종, 줄기가 고리버들 세공, 지팡이,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됨)을 연안지역과 무역한다.

주로 연안지역을 따라 위치한 라우제족 촌락들에는 죽마 위에 세워진 작은 집들이 있다. 마을 안에서 결혼은 무슬림의 형식을 따르며 중재인이 주선한다. 이 중재인은 소녀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신부의 지침금을 협상한다. 사촌간의 결혼을 선호되며,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기도 한다. 결혼하면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신랑 혹은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산다.

신앙
이슬람교는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종교다. 14세기 이전에는 힌두교가 인도네시아 지역에 널리 퍼졌었는데 지금은 소수만이 믿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14%가 기독교인이다. 많은 중국인들이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정령숭배적 종교는 외진 곳의 부족들이 믿고 있다.

라우제는 무슬림이 70%이며, 나머지는 정령숭배자들이다. 정령숭배자들은 "수쿠 테라싱(sukuterasing)" 혹은 "외국인 부족"이라고 불리며, 재배치를 포함해 정부의 행정조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다른 토미니(Tomini)족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기는 하나, 라우제족 신앙인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적은 양의 기독교적 자료가 그들의 부족 언어로 제공된다.

컴프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로, 이집트 전체 인구 8500만 명의 약 10%가 컴프교를 믿고 있다. 이집트인 대부분은 이슬람 수니파다.

터키, 건국 후 최초 기독교회 신설 승인
터키 정부는 지난 3일 건국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기독교 교회 건설을 승인했다. 향후 터키의 모든 기독교 종파들에 대해서도 신앙의 자유가 확산될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슬람교를 천명하는 터키가 교회 신설을 승인했다는 것은 소수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정교회 이외에 개신교회 등에도 신앙 자유의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터키에서 공인된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6일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에 따르면 터키의 첫 교회 건축 예정지는 수도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화당 인근의 예실교이 지역이다. 예실교이는 터키 내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1만 8000명의 시리아 기독교인 상당수가 집중해 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교회는 '마리아 시리아정교회'(조감도)로 최근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가 동방 정교회와 유대교 등 터키 내 소수 종교 지도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결정됐다. 교회 건축 비용은 15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세계지도정보(2010)에 따르면 터키의 범기독교 비율은 0.21%에 불과하다. 정교회 가톨릭교회 독립교회 성공회 개신교회 등이다. 교회 수로는 가톨릭 교회가 가장 많으며 아르메니안정교회와 시리아정 교회가 그 다음을 잇는다. 최근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리아정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터키 내 개신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선교사는 "1990년 10여개에 불과하던 교회가 최근엔 150여개로 성장했다"며 "이슬람국가에서도 염연히 복음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는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이스탄불)을 로마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면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도시로서 1000년 간 존재했다. 이후 11세기에 투르크족이 침입해 이슬람화 됐고 최초의 무슬림 왕조인 셀주크 제국이 등장했다. 이어 오스만제국을 거쳐 1923년 현대 터키공화국이 이르는 동안 강력한 이슬람 체제를 이어왔다. 터키 개신교 선교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교회에 폭탄테러 8명 부상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3건의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새해 예배를 드리던 교회도 대상이었다. 적어도 13명이 사망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의심된다.

로이터통신은 1일 나이지리아 북동부 고펀에 위치한 한 교회에 자살폭탄 테러범이 침입해 교회 입구에서 점근하던 한 여성에게 나이트라이더를 쏘아 죽였다고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적십자사와 현장 관계자는 "이날 아침 교회에서 새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오토바이를 탄 자살폭탄 테러범이 교회에 진입을 시도했다"며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바로 폭탄을 터뜨려 8명이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고펀 주 볼라리에 있는 군부대 막사에 점근하던 한 여성에게 나이지리아 군이 발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여성은 허잡을 쓰고 있었으며, 발포과정에서 몸에 부착하고 있던 폭발물이 터져 죽었다. 31일 요베 주 피카 시의 한 버스에서 자살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려 11명이 사망했다.

새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8가지 생각
크리스천투데이 국제판이 2015년을 맞아 기독교인들을 위한 8가지 생각을 제안했다.

1.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그러나 실천하기 힘든 계명이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의 '혈'을 울려놓는가. 그 사람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도록 노력하라. 불평하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2.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을 버려라: 주님께 문제를 가져가면서 성경의 '좋은 종'이란 소리를 들으려고 간구하고 인내하지 마라. 당신이 주님의 영광을 가져오려면 신앙공동체 이외의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몇 주 동안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3. 신앙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 비기독교인과 대화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공동체 내부와 외부 사람들을 다르게 대한다. 특히 기도, 예수 또는 천사나 악마 등을 포함한 대답에서 그렇다. 직업을 바꾼다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에 대해 좀더 개방된 자세를 가져라.
4. 목사에게 친절하라: 신학의 미세한 관점에서 지도자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라. 한 달의 몇 시간을 위해 지루한 관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주문하지 마라. 올해에는 교회 지도자를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노력하라.
5. 좀더 베풀라: 자선단체나 교회에 좀더 기부할 수 있다. 예산이 팍팍하다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하려 하지 말고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것을 포기하라.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6. 자전기 타기와 걷기를 시작하라: 대체로 새해 결심에서 헬스클럽에 꼭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자전기를 타거나 걷기는 어떤가. 좀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기도를 최우선 순위로 뒤라: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유익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계획대로 하지 못한다. 다른 건 몰라도 매일 기도를 위해 특정한 시간을 배정하라. 그것도 힘들다면 기도 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양지질 하거나 샤워하는 시간도 기도할 수 있다.
8. 험담하지 마라: 교회에서 아침 휴식 시간에 차를 한잔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동안 '뒷얘기'나 험담을 하고 싶은 충동에 빠지기 쉽다. 기도 시간을 빼먹지 마라. 유명잡지와 웹사이트를 멀리하라.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인도 달리트 기독교인 '신앙과 혜택' 갈림길

인도 달리트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혜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달리트는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위층을 뜻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달리트는 2500만명으로 추정된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ICC)의 발표를 인용, "인도 전역에 걸쳐 기독교로 개종한 달리트가 '신앙을 유지하든지, 달리트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혜택을 받든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다.

인도 헌법은 달리트제도를 효과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고용하는 공무원과 교사들 가운데 일 정수를 달리트들에게 할당하는 '지정 카스트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달리트는 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ICC는 "수백만 명의 달리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는 것을 선택하든지, 가난의 탈출구인 정부 지원을 선택하든지 해야 한다"며 "이같은 차별은 인도의 종교적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인도침례교회 소속 마드후 찬드라 싱(Madhu Chandra Singh) 장로는 "인도 대법원은 이런 상황을 부인하지만, 달리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개종 전이나 후나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달리트 기독교인들은 개종 후 종교 박해로 고통 받을 뿐 아니라 1950년 만들어진 '지정 카스트제도'로 생긴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지정 카스트제도는 달리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중차별"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인권활동가인 프랭클린 카이사르(Franklin Caesar)는 "지정 카스트제도는 기독교인과 무슬림 달리트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며 "수백만 명의 달리트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해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보홀, 택시 성경구절 부착 의무화

필리핀의 한 도시가 택시에 성경 구절을 부착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성경구절 없이 택시를 운행할 경우 벌금을 물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의 대표적인 관광섬 보홀의 타그빌라란시는 모든 삼륜택시 기사에게 택시 뒤편에 성경구절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범죄예방 목적이다. 시는 성경구절 부착 캠페인을 펼친 뒤 효과를 얻자 이를 법제화했다. 타그빌라란시에서는 매년 3000명이 새롭게 삼륜택시 면허를 발급받는다. 앞으로 모든 삼륜택시 기사들은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는 성경구절을 부착해야 한다.

시의원인 루실 라구나는 성경구절 부착이 도시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범죄율을 감소시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매일 성경구절을 볼 수 있다"며 "그것은 우리도시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집트서 교회 지키던 경찰관 2명 피격 사망

교회 경비를 서던 경찰관 2명이 무장 괴한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집트 일간 알야흐람은 6일 수도 카이로 남쪽 민야 지역의 콤프트 교회를 지키던 경찰 2명이 폭탄 괴한의 총격으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범인들이 경찰에게 쏜 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두 경찰관은 30발 이상의 총탄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말했다. 괴한들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고 현지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집트 공휴일인 콤프트 기독교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벌어졌다.

지휘자 & 반주자 청빙

주사랑장로교회에서 섬기실 분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지휘자, 반주자

- 자 격: 세례교인
- 제출서류: 이력서(Option:추천서)
- 연락처: 718-571-5556
- Email : danielsk05@gmail.com
- ★ 11:30 am 주일2부에 전후 연습 포함

주사랑장로교회

209-08 48Ave. Bayside, NY 11364
Tel: 718-229-8855 Fax: 718-224-6630

리비아서 기독교인 최소 20명 피랍

이집트 기독교인이 리비아에서 무장대원에게 납치됐다. 급진 성향의 이슬람 민병대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된다. 알 자지라와 AP통신은 최근 리비아 중부 해안도시 시르테에서 최소 20명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납치됐다고 보도했다.



무장대원들은 복면을 하고 시르테의 주택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거주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이집트 기독교인 13명을 끌고 갔다. 무장대원은 15명 정도로 4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각 집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전에도 이집트 기독교인 7명 이상을 납치했다.

리비아의 한 소식통은 급진 성향의 이슬람 민병대인 '안사르 알샤리아'의 소행이라고 말했다. 한 목격자는 "무장대원들은 기독교인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갖고 있었다"며 "신분증 확인 작업을 통해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분리하고 기독교인만 데려갔다"고 전했다.

리비아에는 수천명의 이집트인이 건설 노동직과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머물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리비아 동부 벤가지에서 이집트 기독교인 7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교회란?

교회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무엇을 하여야 할까? 교회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성전' 또는 '예배당'과 같이 교인들이 모이는 건물 또는 조직으로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확장과 함께 세워진 지역교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나아가서는 초기 한 국교회사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분명 교회란 건물과 조직을 가리킨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는 그 지체들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였다. 그 후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현재 그의 몸은 분명히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을 지니셨다.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건과 함께 탄생한 신약시대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구약의 교회는 유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형제와 자매들

지만, 어떤 유희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없이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서 교회답다는 것은, 복음 전파 사명에 전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

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밝혀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회는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널리 전파하는 도구이다.

교회 역사란?

교회 역사는 교회가 걸어온 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교회 역사는 일반 역사학 연구 방법과 같이 과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데 힘을 쏟는다. 그렇지만 교회 역사는 그리스도께 속한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

진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그렇지만 교회 역사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교회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속화의 길을 걷는 모습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전적 부패에 대한 생생한 현장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포기한 채 이성과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진리가 영원하다는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된다. 이단과 거짓 교사가 출현하여 성도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복음과 교회의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각심을 갖게 된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성도들의 피와 눈물이 흐르지 않다는 사실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게 된다. 폭풍 앞에는 촛불과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과 교회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떠한지를 배우게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살아서 운동력을 지닌 성경을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고 말했다. 교회 역사는 성경을 배우는 학습장이다. 교회 역사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현장감 있게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교회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존중하고 복음 전파 사명에 전무하는 것 성경의 학습장 교회역사는 타락한 인간모습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배워

로 구성된 '한 가족'이다. 그렇다면 '교회답다'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존중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다. 각 시대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요구하며 외치는 소리가 있

장을 위해 존재한다. 성도들이 예배와 섬김, 그리고 양육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하는 이유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와 비본질적인 일과 세상적인 문제에 휘둘리어 온갖 힘과 시간을 빼앗겨버리면, 자연히 교회의 머리인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

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란 건물과 조직뿐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지체인 사도. 그렇기에 교회의 역사는 수많은 사건을 포함시킨다. 그렇지만 교회사의 관심은 독특하다. 오순절 사건을 교회의 출발점으로 지목하고,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건을 '신약 교회의 연장'으로 바라보는 것을 중요시 한다. 특히 신앙

로 생겨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신앙의 학문'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였는가? 그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교회 역사는 성경의 가르침의



그래서 그랬던 거야?(1)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1. 손님들이 왔을 때 사라는 왜 내다보지도 않았는가?

베두인들은 3천년 이상 사막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유목민이다. 이들은 문명을 등지고 천년, 2천년 동안 내려온 전통과 관습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15만명 정도가 시나이 반도와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걸쳐 살고 있다. 이들의 조상은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 족속으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옛날의 미디안이다. 이들은 환대(hospitality)로 유명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도 지

나가는 손님들을 강권해 대접해서 보내곤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베두인들의 관습이다. 그들은 손님을 극진하게 잘 대접한다. 손님이 오면 아무 것도 묻지 않는다. 무조건 자기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흘까지는 극진히 대접한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손님이 떠나는 것이 예의다. 백여년 전에 터키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죄수 2명이 탈출해서 광야로 도망갔다. 그들이 베두인 장막에

숨어들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군인들이 베두인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죄수들을 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베두인 주인은 거절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자, 베두인이 총을 꺼냈다. 그리고 한 방을 쏘아 자기 말을 죽였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죽였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이 죽인 마당에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소. 그래, 한번 들어와 보시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두고 보시오."

이것이 유목민들의 환대 문화이다. 일단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은 목숨을 걸고서 지켜주는 것이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했다가 부지불식간에 전사들을 대접한 이야기가 나온다(창 18:2-8).

아브라함이 지금 정성을 다해 신나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는가? 이런 것이 베두인들의 문화이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베두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베두인들처럼 평생 양을 치면서 살았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리고 평생 이동하면서 살았다.

베두인들이 평생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그림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장막)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집에 맞아들였을 때 그는 그들에게 발 씻을 물

을 가져다주고 손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했다. 그런데 왜 아내 사라를 보이지 않는 것일까? 어디에 간 것일까? 왜 사라가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했을까? (창 18:9-10) 사라는 손님들이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어떻게 손님대접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요르단의 와디 럽 사막을 방문했을 때 양을 치는 할머니를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풀에 맞은 뱀한 일이 있었다. 이것이 내가 베두인에게 받은 첫 번째 환대(?)였다. 베두인 여자들은 외부 남자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린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그런 불운을 당했던 것이다.

이집트에서 베두인과 결혼해서 사는 한국인을 만났다. 그 분은 이집트에 배낭여행을 왔다가 사막에 반해서 그곳에 사는 베두인과 결혼했다고 한다. 그분에게 사진을

찍을 것을 요청했으나 정중하게 거절을 말했다. 사진 찍은 것을 남편이 알면 절대로 안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이었다.

요르단의 와디 럽 광야에 사는 베두인 장막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다. 사라처럼 안주인은 우리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단 한마디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물론 요리도 모두 남편이 했다. 이런 것이 베두인의 문화이다.

중동의 이슬람권 여인들은 얼굴을 드러내놓지 않는 관습이 있다. 그래서 온 몸을 칭칭 감싸고 다닌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다. 이런 관습은 여인들이 남자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삼가야 하는 베두인들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라가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고 방 안에만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메일: jinhee1004@yahoo.com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p>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ll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5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영양예배: 오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youngnak.com 1721 N. Broadway Ave.,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nachimbun.org Tel: (32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전 11:30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un.org</p>		<p>남가주등둔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www.scdm.org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p>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남가주사망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Holywave-영어예배) 주일부예배: 오전 1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p>		<p>등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c.org</p>	
<p>중앙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p>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품 귀를 위하여 있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공동)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dreamchurch.org / www.dreamchurch.com Tel: (626)793-0880, (202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St., Pasadena, CA 91106</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pcj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호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1:45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부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1:00 www.bethelchc.org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p>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 www.samsungchurch.com Tel: (562)890-9800, Fax: (562)890-6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p>		<p>새천양교회 담임목사: 변운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yon@gmail.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6289 Ball Rd., Cypress, CA 90630</p>		<p>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영양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11:00 www.anaok.org Tel: (310)370-5200, Fax: (310)370-2009 2422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p>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요영양예배: 오후 7:30(주일) www.gracemc.org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tv.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2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년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200, Fax: 310-370-2009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창조과학 칼럼 (218)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27) 처음이 가장 좋았다! (1)

성경 중에서 가장 장엄하고, 풍성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곳은 창조과학을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일 것이다. 성경의 처음 두 장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인 사람들을 위해 창조하신 세상일 뿐 아니라 죄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다른 특별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더 이상 좋을 수 없었다. 창조주만 둘째 날만 제외하고 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붙어 있다. 과정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표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셋째 날 물이 드러나자마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뜻이 '좋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때

또, 열역학 제 2 법칙에 의하면 모든 질서는 점점 파괴된다. 그렇다면 과거로 갈수록 점점 더 완벽해져야 하고 처음이 가장 완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창조가 끝났을 때 세

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제 2 법칙에 의하면 모든 것은 점점 파괴될 것이므로 창조 당시에는 그 상태가 아무리 완벽했다 해도 결국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

라는 호칭이 하나님(God) 앞에 덧붙여 있다. 창세기 2장은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창세기 1장의 부연 설명이다. 여기에 사람과 창조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여호와(LORD)가 개입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LORD)이시지만 사람에게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다. 사람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여기고 섬기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같은 성품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자기가 주(lord)가 되어 타락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거둔다 사람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읊을 통해 한 예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음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프린스턴한국교회)

은혜건강증 환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갈때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출17:3).

르비딤에 장막치니 물이 없다. 원망하며 모세를 다투는 백성입니다. 계속 문제만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우리중에 계신가? 아닌가?" 시험에 빠져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곧 이는 아벨레와 전쟁,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양 쪽에서 모세의 손을 올리도록 도우니 아벨레가 도망칩니다. 오랜 세월 노예로 살다보니 생존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장 하늘이 무너내리는 듯한 불안에 빠집니다. 아직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도 문제만 생기면 물거품 신앙입니다. 지난날의 돌봐주신 하나님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문제만이 크게 돋보일 뿐이니! 절대 은혜 건강증 환자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어김없이 찾아드는 질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정말로 한심한 구제 불능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가 예쁘다고 저토록 알뜰히 돌봐주시는지? 얼마나 많이 경험해보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보장이 살아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성령께 맡기고 따라잡아 얼마나 쉽고 안전한가? 그 와중에 본도인 아벨레와 목숨건 전쟁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점입니다.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지도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원망에 빠지는 것이 저들이 특수전공입니다. 실제로 제일 힘든 이는 모세 자신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것을 광야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이 힘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저의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저의 힘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려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저의 지도자의 자리에 확고히 서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의 온전한 순종이 자신은 물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수를 압니다. 여호수아를 아벨레 가운데 보내고 자신은 손을 올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자신하여 모세의 피곤한 팔을 올리도록 도와주어 대승합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합심하니 하나님이 나아가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교회도, 사업 터도, 더 나아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행동부터 다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처신합니다. "이것도 내가, 저 것도 내가" 남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전체의 유익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용히 채웁니다. 다 모세인가? 다 여호수아인가? 다 아론과 훌인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공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굴복해 힘을 합하면 공동의 적인 아벨레는 당연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부쳐 팔이 내려갑니다. 당연히 홀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각기 모세의 양팔을 올려주니 승리합니다. 나는 지도자의 약함을 보고 비관하는 자리에 서는가? 아니면 그 부족을 나의 자리로 알고 아론과 훌처럼 지도자의 손을 붙들어 주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것인지 나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있는지?

고생의 떡을 나누는 후 슬리위해 일심으로 연합하여 주님이 승리로 이끄시도록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론과 훌도 각자가 자기 자리에 잘 있었습니다. 그리 힘들게 출애굽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닥치니 하나님보다는 당장 목마르고 배고픈 생각만 가득... 아무런 하나님의식이 방학해 버린 이스라엘 민족... 도무지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어찌 하나님 생각이 그리도 까맣게 나지를 않는 은혜 건강증 환자인가? 그런데 문제는 나도 역시 저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이 걱정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데 나는 나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탈하였는지 자신을 살펴봅니다.

주님, 자기 주체파악을 못하고 감 나라 대추 나라 너도 나도 나서니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가슴에 숨어있는 교만을 버립니다. 교만에서 올라오는 욕망은 주의 일을 그르치는 원흉입니다. 겸손히 주의 일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우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소리를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속눈을 밝히소서!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창조 당시가 가장 완벽했던 것은 열역학 제 2법칙과 조화 이뤄 열역학 제 1법칙에 의하면 물질(에너지)은 (창조)기적으로만 생성

지에 식물들을 종류대로 나타내게 하셨을 때 또 다시 '좋았다'고 말씀 하셨다. 셋째 날에 만 두 번씩이나 '좋았다'고 하셨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장면들을 보면, 땅에 빛을 비추는 천체들이 좋았고, 물 속 생물들과 날개 가진 생물들이 좋았고, 땅 위의 각종 동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의 목적은 지구에 창조자의 형상이 살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사45:18) 주로 땅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에만 좋았다고 하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둘째 날의 공장은 지구의 일부이긴 하지만 물과 물 사이에 있어 사람이 직접 밟고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상상해본다.

아무튼, 창조가 끝났을 때 우주는 가장 완벽하였다. 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과학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이기도 하다. 물질에 관한 모든 법칙들 중에 가장 확실한 법칙인 열역학 제 1 법칙에 의하면 물질(에너지)은 저절로 생성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 없다면 물질은 없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기적을 통해서 즉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통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은 가장 완벽했던 것이다. 성경은 바로 그 완벽한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완벽했던 창조 세계는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 열역학 제 2 법칙에 따라 무질서해지기 시작했고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 사건인 노아홍수 때 더욱 급격하게 파괴되고 말았다(벧후3:6). 성경의 기술은 이 열역학 제 2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더 복잡한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진화는 이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이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 물질적으로 완벽한 세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열역학 제 2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고 결국에는 죽

나 여기에 묘미가 있다. 제 2 법칙의 결과로 파괴되거나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의 근원인 창조자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창조된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완전한 세상이었기 창조자 없이 세상 자체만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것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가 아닐까? 그냥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과 세밀한 조절이 필요한 우주인 것이다. 그 창조자는 지금도 그 세계를 보존하고 계신다(히 1:3).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 이름에는 여호와(LORD)

음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욕하지 않지만 창조된 자신을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였다. 그런 음에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무섭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하여 음의 위치를 깨닫게 하신(38-41장). 그때 음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는데 바로 피조물 본연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욥42:1-6). 이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감절로 부여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간의 본래 위치, 즉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의 주종관계(LORD-slave relationship)가 재정립된 사람들이다. 창조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회생을 통하여 다시 얻은 사람들의 주인과 양이 되시기를 원하신다(요 13:13; 18:37). 그러나 그 주인은 선하시고 사랑이 없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얻은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이라, 아들이라, 신부라, 친구라 부르시는 분이이다. 그런 자기의 형상들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하였다. 처음이 가장 좋았다! 그 분이 준비하신 온 세상은 흠이 없이 완벽한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승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기도회: 오전 6:00(토)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벤델교회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EM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 오후 7:30 중등청년부: 오전 12:15 주일유년부: 오전 10:00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중등청년부: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새시온천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9: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새벽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EM)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역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45 금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영양): 오전 5:30(월-토) 오전 5:3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연합의 아름다움 이루자”

이민112주년, 미주한인의날 기념감사예배&콘서트

미주한인재단 USA(전국총회장 김성웅)와 오리엔티카운티 기독교교회 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가 공동주최한 미주한인 이민112주년 및 2015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감사예배가 11일 오후 6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렸다.



미주한인 이민 112주년 및 2015년 미주한인의날 기념 감사예배와 기념 콘서트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테너 이준실, 소프라노 김희우, 테너 엄정행, 오위영이 미주한인의날 기념콘서트에서 공연하고 있는 모습

송규식 목사(미주한인재단 문화 예술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민승기 목사(OC교협 수석 부회장) 대표기도, 팽택대학교 마드리갈싱어즈(지휘 김형기 교수)의 특별찬양에 이어 김기동 목사가 ‘연합의 아름다움(시133:1-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김성웅 전국총회장이 환영의 말씀을 전했다며 박상원 장로(미주한인재단 명예 전국총회장)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박승덕 목사(OC교협 이사)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에는 미주한인의 날 기념 콘서트가 열렸다. 박상원 장로의 사회로 진발레스쿨 학생들의 댄스 공연, 김창원 선생의 클라리넷 연주, 한국선교무용 예술원, 열린문 바다위십 아트칼리

지 율동팀이 품잔양을 했으며 소프라노 김희우, 테너 이준실, 마드리갈싱어즈, 테너 엄정행 교수의 공연이 있었다.

이날 콘서트는 테너 엄정행, 오위영, 이준실이 ‘오솔레미오’와 ‘여자의 마음’을 불렀으며, 청중들의 환호와 앙코로 요청으로 소프라노 김희우와 함께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를 부름으로 미주한인의 날 기념콘서트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박준호 기자)

효사랑선교회, 2월 놀이 사무실 개설

남가주지역에 한인 시니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상담해주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한인 시니어들은 부부관계, 자녀와의 갈등, 건강, 재정, 미국생활 적응 등 각종 문제들에 매일 부딪히고 있지만 마땅히 찾아가서 한국말로 하소연하고 상담 받을 만한 곳이 드물다.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를 나누면서 해결점을 찾아주고 있다.

이외에 시민권이 없어 정부 혜택을 못 받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전9시30분부터 정오까지 시민권 인터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놀이 사무실이 개설되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

행하며 강사는 시민권 인터뷰 전문강사인 김성미 씨가 맡는다. 또 매주 금, 토요일 오후 생활영어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성미 강사는 “이번 시민권 인터뷰 교실과 영어강좌는 한인 시니어들이 미국생활을 하면서 영

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니어 뿐 아니라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효사랑 선교회는 ‘신앙의 뿌리 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혁 담임자는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들과 선조들이 고통과 핍박을 받으며 순교로 신앙을 지켰다”며, “신앙의 뿌리를 흔든다는 지금,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

노년기 부부문제 · 자녀갈등 상담, 시민권인터뷰 교실 운영

올렌지카운티 부에나파에 위치한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2015년을 맞아 다음달 놀이 사무실을 오픈하고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효사랑 선교회의 김영찬(가운데) 목사, 김영혁 ‘신앙의 뿌리 찾기’ 담임, 김성미 시민권 인터뷰 담당자 등이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포 김영찬 목사는 “한인 노인들이 황혼기에 존경받으며 값지고 보람된 삶으로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며, “미국생활을 하면서 노인들이 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한인 시니어들을 주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는 이 선교회는 웰페어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이민생활을 하면서 한

의 선조들을 본받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운동에 많은 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효사랑선교회 (714)670-8004 Cell (562) 833-5520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효사랑선교회)



필라교협회장 최해근 목사가 신년하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포사회와 협력하는 교협 되자”

필라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기도회

대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해근 목사) 2015년 신년감사예배와 하례회를 겸한 기도회가 지난 11일 오후 5시 몽고메리교회(담임 최해근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최해근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 성황을 이뤄주신 것에 감사하

며, 앞으로 동포사회와 더불어 협력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1부 감사예배를 겸한 기도회는 최해근 목사 사회로 박상구 장로(자문위원) 대표기도와 몽고메리교회 합창단의 찬양 후 김만우 목사가 시133:1-3, 아2:을 인용,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랑의 연합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가진 통성기도는 주은재 목사(목양교회), 황준석 목사(큰민음제일침례교회), 이대우 목사(필라라한빛성결교회), 김성준 목사(사랑의교회)가 미국과 한국, 북한과 세계 선교지와 이민사회를 위해 특별기도를 인도하고 박태문 목사(필라라사회장) 축도 후 이동도 목사(총무) 광고로 마쳤다.

2부 신년 하례회는 김창만 목사(대내분과위) 사회로 장권일 필라평동협의회 회장의 대동령 신년사 낭독 후, 김진훈 목사(직전회장), 안상익 목사(직전 제2부회장)가 감사패 전달, 각 봉사단체 인사 소개가 있었다. 특히 데이빗오 시의원, 필라기독교방송 박상익 운영이사장, 김경택 필라체육회 회장들이 찬조 인사가 있던 후 몽고메리교회에서 제공한 푸짐한 식사로 친교를 나누고 강승호 목사(홍보분과위원장) 폐회 기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고 문경환 목사 장례식에서 참관객들이 부양하고 있다.

동부개혁장신 학감 문경환 목사 소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학감인 문경환 목사가 체장암 투병 중 지난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68세.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장을

4회 역임한 문 목사는 노회장으로 뉴욕서노회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장례예배가 진행됐다. 5일 저녁 장례예배는 뉴욕서노회장 김영민 목사 집례로, 6일 오전

발인예식은 문석호 목사, 허관예식은 강기봉 목사가 집례했다. 조사는 김해천 목사, 고인약력 소개는 유한수 목사가 했으며, 발인예식 조가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재학생들이 불렀다.

1946년생인 고 문경환 목사는 1974년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1976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1982년 도미, 1986년에는 웨이스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시카고에서 SFC 대학생 선교활동을 했다. 뉴욕중앙교회와 뉴저지사랑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했으며, 2007년부터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감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뉴욕서노회장로교회 협동목사로도 사역해왔다. 유족으로는 방영옥 사모와 1남2녀, 4명의 외손녀가 있다. (유원정 기자)

(4면에서 계속) 아버지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공의회(325년)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였으나 콘스탄티누스 1세에게 접근하였고 그 후 콘스탄티누스 2세 치하에서는 전 로마제국을 지배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본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사본질(Homoiousios)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에게 미혹된 황제로 인해 정통신앙을 고수했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는 교리문제로 환난을 당해야 했다. 그는 무려

20년 동안 6차례에 걸친 추방을 반복해야 했다. 니케아공의회에서 가결한 성부와 성자는 동일본질이라는 교리를 바꾸어 유사본질로 고치게 하는데 있어서 아타나시우스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원죄 없이 탄생하여 예수님을 낳고 동정을 지키다가 원죄 없이 승천하셨다고 믿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현실화 될 것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아타나시우스가

지킨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6번이 아니라 60번을 추방당하는 일이다 해도 말이다. 콘스탄티누스 2세 역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복형제들을 죽였고, 친 형제들의 칼부림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중재하고 막았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그 많은 죄를 탕감 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신앙에 매진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 콘스탄틴 황제처럼... 권력과 신앙, 그것은 어쩌면 양립하기 어려운 방정식 같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갯세마니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Tel: (718)358-6225, Fax: (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Tel: (917)733-7387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Tel: (718)461-2811, Fax: (917)373-3411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뉴욕동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크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Tel: (718)570-5858

에사람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Tel: (347)733-4551

주비성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좋은교회
담임목사: 김신영
Tel: (516)584-4088, www.jounokchachurch.org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진영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Tel: 3277-1489, Fax: 3209-9343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브라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Tel: (5511)6693-9754, 6692-116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Tel: (54)114-631-1788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Tel & Fax: (562)558-7828, (562)341-0389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Tel: (416)490-9060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Tel: (595)221-574-985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Tel: (808)585-18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청년부 겨울 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월 18일(주)부터 20일(화)까지 뉴저지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열린다. 강사는 조상병 목사이며 주제는 "기본 신앙의 정석".
▲문의: (718)886-4040

뉴욕제자들과교회 성경세미나

뉴욕제자들과교회(담임 라홍채 목사)가 2015년 새해를 맞아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30분 본 교회(39-50 더글라스톤 파크웨이)에서 열린다. 강사는 라홍채 목사.
▲문의: (917)968-1024, 588-2934

사역자 청빙

대한예수교장로회 뉴욕제자들과교회(담임 라홍채 목사)가 정장년 담당 사역자를 청빙한다. 정규 신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영여 가능.
▲문의: (917)968-1024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하게 살자"

뉴욕교협 2015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 2015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12일 오후 7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석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 신년하례는 교협건물 이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교협건물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재홍 목사가 목회자 공로상을 받았으며, 위원으로 활동한 이대연 장로가 평신도 공로상을 받았다. 또 장경혜 목사가 총무 및 새건축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익 장로가 평신도 부회장으로 교협건물 이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이재덕 회장은 이전한 교협건물을 "뉴욕사회와 뉴욕교계 성지의 요람"이라며 "건물이전 과정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였지만 기적적으로 일정을 맞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협건물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하나님과 여러분의 것이므로 많은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예배는 이종명 목사(부회장) 인도로 기도 최창섭 목사(경경회장), 성경봉독 이상호 집사(이사장), 찬양 뉴욕장로성가대, 설교 이용길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봉헌기도 박영진 장로(평신도 부회장), 축도 송병기 목사(경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길 목사는 "건강의 축복"(출 15:26)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건강 매뉴얼인 성경을 통해 슬금슬금 살자" 삼익이 중요하다 삼익식을 구별하라. 하나님은 이미 있

는 질병도 치유하겠다고 하셨으니 이를 믿고 새해에는 건강하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하례순서에서는 손세주 총영사(뉴욕총영사관), 민승기 회장(뉴욕한인회), 이병준 목사(뉴저지교협 회장), 이만호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김중규 장로(한기연 사무총장) 등이 내빈 축사를 했다.

이날 교협 주소록과 수첩이 배부됐으며, 41회기 주요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연례적인 사업 외에 △5월 중국 선교지 탐방 △9월 한국성지순례가 예정돼 있다. 또 이상호 이사장은 이재덕 회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뉴욕교협은 이웃사랑실천을 위해 모금한 6천달러를 20개 단체에 3백달러씩 성금을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신년하례에서 20개 단체가 이웃사랑실천기금을 받았다.

뉴욕일원 각 교단 노회 신년하례 예배드리고 2015년 출발

뉴욕일원의 각 교단 노회들이 2015년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 예배를 드렸다. 신년하례 예배는 오순절 교단인 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가 3일로 제일 먼저 드렸으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4일(뉴욕남노회), 5일(가든노회), 8일(뉴욕동노회), 11일(뉴욕서노회), 그리고 12일(뉴욕노회) 노회별로 드렸다. 또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6일 등 대개 첫 주에 드리는 노회가 많았다. 노회원들은 예배 후 친교를 나누며 2015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의 시간도 가졌다. 각 노회 신년하례예배를 빠른 날짜별로 게재한다.

한편 뉴욕 뉴저지 일원의 개 교회들도 2015년 1월 1일 혹은 첫 주일인 4일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교회들은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으며 떡국잔치를 벌였다. 또 특별새벽기도회와 금식성회로 믿음이 넘치는 새해를 준비하기도 했다.

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예년과 같이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회장 김명옥 목사)는 1월 1일부터 3일간 뉴욕예은교회에서 신년금식성회를 열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을 1:14)라는 주제로 진행된 성회는 3일간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에 계속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해 첫날 오후 8시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김명옥 목사가 히브리서 4:12-16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명옥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찢림이 없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처럼 드러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점검했다. 설교 후 기도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강대상 앞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시간도 가졌다.

KAPC 뉴욕남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남노회는 지난 4일 오후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노회장 김재열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신년하례 예배는 권영국 목사(뉴욕하나교회)가 "말씀 관계, 사랑 관계, 사명 관계"(요21:1-17)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관계 회복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2부 하례식에서는 뉴욕중부교회

당회원 부부가 준비한 정성스런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중부교회 당회원 부부와 교역자들과 함께 웃음이 가득하고 그 이후의 푸짐한 선물을 나눔으로 깊은 연합의 시간을 가졌다.

KAPC 가든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노회장 조문선 목사)가 노회분류 후 첫 신년을 맞아 지난 5일 오전 11시 뉴욕제일장로교회(담임 조성훈 목사)에서 신년하례 예배를 드렸다.

노회장 조문선 목사는 "희소의 가치가 큼니다"(눅18: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시대를 진단하고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그 가치가 크다"고 강조하며, 가든노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부탁했다. 조 목사는 또 "어려운 것을 보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신년에도 사명을 다하는 지교회와 목회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미국과 조국을 위해, 세계에 흩어져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총회와 노회와 지교회를 위해 통성기도가 진행됐다.

한편 신년하례를 통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라는 교단의 이름을 놓고 교단 이따자들과 범정부쟁을 벌인 결과, 잘 마무리됐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졌다.

PCUSA 동부한미노회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김진호 목사)는 6일 오전 11시 머릿돌교회(담임 이상칠 목사)에서 신년하례 예배를 드렸다.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가 시편 126편을 본문으로 "광야에 화초가 피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도에는 김상수 장로, 중부기도 인도는 김용주 목사가 맡았으며 윤명호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발표한 2015년 노회행사 계획은 4차례의 정기노회와 4차례의 중앙협의회 모임, 7월 노회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 7월 노회연합단기선교, 8월 야외회 및 목회자 위로회, 9월 애복수양회, 10월 사모수련회, 12월 노회연합 유스 수련회 등이다.

KAPC 뉴욕동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동노회(노회장 이길호 목사) 신년감사예배가 지난 8일 오전 11시 뉴저지 온누리장로교회(담임 조문휘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 인도 및 설교는 노회장 이길호 목사가, 기도 김영일 목사, 성경봉독 이신권 목사, 광고 이상만 목사, 축도 황상하 목사로 진행됐다.

이길호 목사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벧1:9-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새해에 목회자들이 기도와 소원으로 삼아야 할 것은 첫째, 목회자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되며 둘째,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에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셋째, 목회자들의 사역과 개인적인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길호 목사는 지난해 말 담임하던 주사랑장로교회를 사임하고 롱아일랜드에 교회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KAPC 뉴욕서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를 마치고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서노회를 마치고 노회원 부부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동노회



가든노회



뉴욕남노회를 마치고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서노회(노회장 김영인 목사)는 11일 오후 5시 뉴욕천성장로교회(담임 이승원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 및 임시노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유한수 목사 인도로 기도 김장근 목사, 설교 김영인 목사("은총과 간구하는 영", 수2:10-13:2), 축도 이승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임시노회는 열고 든든교회 안건을 다뤘다. 임시당회장 정관호 목사의 사퇴정원을 만장일치로 받고 새 임시당회장에 김장근 목사를 선출했다. 김장근 목사의 임시당회장 기간은 새 담임목사 청빙까지로 한정했다.

또 지난 KAPC 총회에서 뉴욕서노회 수습위원으로 파송된 조영길 목사가 든든교회로 세상법정 소송 과정 등에서 월권을 했으며 총회 상설재판부에 고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KAPC 뉴욕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손한권 목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 신년하

례와 아울러 75회 제 1차 임시노회를 열었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 신년하례예배는 문종은 목사의 인도로 기도 정기태 목사, 성경봉독 윤영환 목사, 설교 손한권 목사, 축도 이규분 목사, 광고 문종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손한권 목사는 "복음"(눅4:16-2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도 유대 온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 충만하며 세상적 환경을 계산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유감 없이 복음만 전하는 2015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회무처리는 퀸즈장로교회로부터 장로 4명 증택 청원과 예사랑교회(담임 손한권 목사)로부터 장로 2명 증택 청원을 통과시켰다.

노회원들은 퀸즈장로교회에서 제공한 오찬에 이어 시찰별로 웃음을 하며 친교를 나눴다.
(유원정 기자)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저자 라홍채 목사



영어판, 중국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남가주밀알선교단 신임단장에 이종희 목사 전임 이영선 단장은 미주밀알 총단장으로

남가주밀알선교단은 이영선 단장이 미주밀알 총단장으로 선임된 관계로 신임단장에 이종희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이종희 단장은 총신대학교 신학과(B.A.)와 신대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 그리고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장애인복지 전공으로 사회복지학사(MA of Social Work)를 취득했다. 현재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박사(D.Min.)과정을 밟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시애틀 밀알선교단 단장으로 사역했고,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남가주밀알 전임단장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밀알가족을 섬기고 있다.

은 오는 1월 25일(주) 오후 4시 오펜지카운티 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에서 갖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657)400-9570, (714)893-1652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새 신임단장 이종희 목사



미주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 이임 및 명예총장 취임 예배가 미주감신대학교에서 열렸다

미주감신 총장 이임 및 명예총장 취임 예배 한기형 총장 이임, 채의승 총장 취임

지난 12월 24일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미주감신)는 한기형 총장 이임 및 채의승 명예총장 취임 예배를 드렸다. 80여명의 교수, 교직원 및 학생들 그리고 성도들이 참석한 예배는 강성도 학장의 사회로 정래신 미주연회 대표의 설교, 이임 총장의 이임사와 취임 명예총장의 취임 인사, 윤일홍 원로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미주감신을 이임하는 한기형 총장은 학교가 어려운 시기에 동산교회 건물을 제공했으며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A.B.H.E인가

와 B.P.P.E 승인을 얻어 학교가 갖춰야 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공헌했다.

채의승 명예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미주감리교신학대학이 자체 교사와 기숙 시설을 마련해 제3세계의 신학생들과 중국의 무한대학 신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글로벌 신학교로서의 차별화된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미주감리교신학대학)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15년 시무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홍보대사 3명 대통령상 및 금상 전달 소망소사이어티 2015 시무식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2015년 시무식이 7일 오전 10시30분 소망홀에서 열렸다. 이날 소망소사이어티 홍보대사 3명(유태운, 김병희, 이범영)에게 대통령 수여 봉사자 상(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Gold)

아 마음의 다짐과 감동을 나누는 말씀을 전하며 소망의 사역을 축복했고, 주혜미 사역부장은 2014년의 만남 중 특별히 감동적인 사람들과 사진을 소개하며 2015년 사역에 대한 계획과 각오를 나눴다.

유분자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균수명이 길어진 현 시대에 소망소사이어티는 연장자 사역을 위해 더욱 힘낼 것"이라며, 그동안 함께한 후원자와 봉사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시무식과 식사 후 참석자들은 바캬리스트 작성, 타임캡슐 담기 등 나눔의 시간을 통해 새해의 소망과 새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평택대학교 마드리갈 싱어즈 미국 LA 신년음악회가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이민자들에 기쁨을...전 무대사용 동적 공연 평택대 마드리갈싱어즈 미국LA 신년음악회

평택대학교(총장 조기흥 박사) 마드리갈 싱어즈(지휘 및 단장 김형기 교수)의 LA신년음악회가 10일 저녁 7시30분 동양선교교회(담임 박영은 목사)에서 열렸다.

김형기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된 음악회는 △합창 △여성합창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곡들로 엮어진 뮤지컬 메들리 △세계의 민요 △은혜의 찬양 △한국민요 등의 색선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별히 그동안 타운 및 한인커뮤니티에서 연주했던 정적인 합창음악과는 달리 지휘자와 단원들이 무대전체를 사용하고 각 객석사이를 잇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동적 공연을 펼침으로 뮤지컬을 보는듯한 신선한 느낌을 줬다.

김형기 교수는 "마드리갈싱어즈는 지난해 3월14일 창단돼 9월부터 연습에 들어갔다. 이번 미주한인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오늘 음악회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조기흥 총장은 "연회하기 전 미주한인의 날을 맞이해 대형태극기가 펼쳐지고 애국가를 부를 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저희 학교가 한인들을 위해 작은 위로를 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 공연을 시발점으로 많은 분들께 기쁨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교 이사장 이필재 박사는 "비가 오는 가운데 찾아와 공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택대학교는 103년전 예일대학을 세우고 총장이 된 아브라함 피어선의 9대 후손인 A. T. 피어선 목사가 세운 학교다. 현재 5천명이 되는 종합대학으로 성장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LA를 방문하게 됐다. 해마다 이곳에 방문해서 연주회를 가질 것이다. 2015년 하나님의 큰 축복 받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 2015. 2.16~2.26 - 이스라엘+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 9 - 터키+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5. 3. 2~3.12 - 터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14 - 터키, 그리스, 로마3개국(12박13일) \$3,199

(※ 위외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등목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종교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 E-mail : choigh1115@gmail.com
-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길 킷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예심전도대학 제10기 모집

미주예심전도대학 새해를 맞아 제10기를 모집한다. 개강일은 1월 27일(화) 오전 9시30분. 13주에 걸쳐서 쉽고 재미있게 강의 되는 전도대학은 "쉬운 전도, 되는 전도, 불신자도 매력을 느끼는 전도"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장소는 남가주벙내리교회(1201 S. Beach Blvd. #110 Lahabra)
▲문의:(714)401-9874

제13기 독수리예수제자훈련학교

예수전도단 나사창선교연합(YWAM NASA Window Mission Alliance, 대표 김영환 목사)은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BEDTS(Eagle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for Businessman, BEDTS)를 1월 25일(주) 저녁반, 28일(오전반)을 시작으로 16주간 동안 진행한다. BEDTS는 예수전도단의 훈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직장인과 주부들을 주 대상으로 한 예수제자훈련프로그램이다. 장소는 저녁반(만나교회, 433 S. Normandie Ave., Los Angeles), 오전반(생수의강선교교회, 19200 Pioneer Blvd., Cerritos)이며 학비는 7백달러. 원서는 www.ywamnasa.org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문의:(213)760-0099정한두 간사, (626)628-7429유혁 간사

미서부노회 목회자 장학금 전달식

예장합동 미서부노회는 목회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오는 20일(화) 오전 11시 LA연약교회(담임 고귀남 목사)에서 거행한다.
▲문의: (213)820-0003

'2015 Fuller 한인동문회 Overnight Family Retreat'

'Fuller한인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 주최 'Fuller 한인 M.Div.동문회'(회장 신동희 목사) 주관으로 18일(주)과 19일(월) 'Fuller한인동문회Overnight Family Retreat'을 Miracle Springs Resort & Spa(10625 Palm Dr., Desert Hot Springs)에서 갖는다. 참가비는 가족당 40달러, 개인 30달러이며 참가대상은 Fuller한인동문 및 2015년 졸업예정자. 1월 12일까지 사전예약해야 한다.
▲문의: (951)704-6087, 312-9784, (949)468-9960

미주교회연합 기도성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주관 미주교회연합 기도성회가 '이 땅 고쳐 주소서'라는 주제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22일(목)부터 25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정인수 목사(에틀란타연합장로교회), 김남수 목사(뉴욕프라이미스교회)이며 일정은 22일(목) 저녁 7시30분, 23일(금) 오전 5시30분, 저녁 7시30분, 24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30분, 25일(주) 1, 2, 3, 4부 예배시간.
▲문의: (714)446-6200

강명식과 함께하는 찬양집회&세미나

글로벌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는 찬양사역자 강명식과 함께하는 찬양집회 및 세미나를 16일(금)과 17일(토)에 개최한다. 찬양집회는 16일(금) 오후 8시, 찬양세미나는 17일(토) 오후 7시30분.
▲문의: (714)356-5316이배원 목사

미주갈멜산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미주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3123 W. 8th St. #210, LA)은 신년축복기도성회를 오는 22일(목)부터 2월5일(목)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미주갈멜산기도원 담임인 조성근 목사이며 시간은 새벽 5시30분, 오전 10시30분, 저녁 7시30분. 주일성회는 없다.
▲문의: (213)382-1450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주요 교단·단체 신년하례예배 및 신년메시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교단 지도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며 올 한 해 교단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자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교회와 총회·신학대 발전, 세계선교를 위해 간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은 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총회화합과 투명 한 교단 운영을 강조했다. 메시지를 전한 백남선 총회장은 “총회장 취임 후 총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 유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서 “육광석 동도교회 목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노회 면직을 인정하지 않고 옥 목사와 동도교회가 총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등은 이런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백 총회장은 “올해도 문제를 수습하고 건강하게 교단을 세워가는 데 주력할 테니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장차남 전 총회장은 “교단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신학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공교회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책임감을 갖고 연합운동에도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배에는 서기행 전 총회장, 김재호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중준 총신대 운영이사장, 민찬기 기독교신문 이사장 등 교단 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장수 총무는 총회본부 직원들이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1200만원을 백 총회장에게 전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우종휴 목사)도 이날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를 가졌다. 우종휴 총회장은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밤의 한 순간

같다”는 시편 기자의 지적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는 미미하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개혁의 가치를 높이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자”고 당부했다. 예배에는 박병식 권태진 김정태 이선웅 전 총회장,

안만길 부총회장, 박혁 총무 등이 참석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도 백석학원 산하 4개 대학(백석대, 백석문화대, 백석예술대, 백석신학)과 5일 총신전안 백석대에서 신년예배 및 시무식을 개최했다.

최낙중 해오름교회 목사는 설교에서 “백석교단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에 도취되기도 조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총회와 학원이 되자”고 강조했다. 20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가안보와 복음화, 백석학원과 산하 기관, 총회 성장발전과 화합, 노회와 교회의 부흥, 총회회관 건축 등을 놓고 합심 기도했다. 이 자리엔 장종현 백석대 설립자,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유만석 한국교회연회 대표, 최갑중 백석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선웅 목사)는 지난 3일 서울지

역남전도회협의회(회장 신자룡 장로) 주최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신년하례회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선웅 총회장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결단인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에는 부산 동광성결교회에 출석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교단발전과 성결성 회복 등을 위해 간구했다. 한편 새해를 맞아 주요 교회연

절을 희망과 환희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남북이 더 이상 소모적인 무력 대결을 끝내고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예장합동 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하자”며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미자립교회를 돌아보는 한 해가 되자”고 간구했다. 이어 “남북통일이라는 민족 공통의 목표에서도 먼저

교회가 하나 되고 화해하며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장통합 총회장 정영택 목사는 “2015년에는 북한 땅을 비롯해 전쟁 기아 질병 가난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평화 통일을 위한 화목 제물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천으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교회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윤재 목사는 하나 된 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한국교회가 하나의 민족교회로 나아갔던 시절에 국민적 지지와 존경을 받았고 3·1 운동 등 역사의 선두에 섰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교회가 화평하며 하나가 통일될 수 있도록 주신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과 사귄 동행은 통해 개인과 교회 모두 예수님을 닮는 한 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015년 교단 정체성 회복에 주력” 분단70주년,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

합기관과 교단들이 구급 31일 일제히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광복·분단 70주년인 새해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자고 입을 모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새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목사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새해에는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진정한 화해의 길을 열어가자 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철저한 개혁과 변화를 통해 한국교회의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화합하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새해가 됐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조화와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주님께서 이웃을 찾아오셔서 고통과 좌

단 부상=통계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0년 3.8%에서 2013년 68.8%로 급증했다. 특히 20~30대의 이용률은 95% 이상이었다.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꼴(21.2%)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SNS는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전도·선교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선교신학회 회장 전석재 백석대 교수는 지난날 개최한 포럼에서 “SNS를 활용해 미래 세대와 접촉점을 구축

면 4명 중 1명꼴(25.9%)로 ‘고립’ 또는 ‘거의 고립’ 상황이었다. 고립은 사회적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85세 이상은 이같은 비율이 39.0%로 나타났다. 미혼자 집단은 절반 이상(55.7%)으로 치솟았다.

손의성 배재대 복지신학과 교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목회 없이는 한국교회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돌볼 수 없는 처지의 계층, 즉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계층은 충분히 지역 교회의

‘교회의 눈’ 으로 본 한국 사회동향 2014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4’는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축약하고 있다. 인구를 비롯해 교육과 노동,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통합 등 11개 영역 가운데 목회와 선교, 성도 양육 등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장 목회자와 신학자의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봤다.

◇‘다문화 목회’ 본격 준비해야 =경기도 하남 (새국제의국인센터 이주민 한국어 교실은 지난달 7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중국 일

문화 목회를 적극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장훈태 백석대 교수는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그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문화·노인·SNS 목회...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2013년 현재 다문화 학생 5만5780명으로 4년새 배 증가

본 베트남 태국 등 10여개국 출신의 이주민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센터를 설립한 김찬호(올네이션 처치) 목사는 5일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3월 개강하는 한국어 교실 수강생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늘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곧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와 직결된다.

사회동향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다문화가정 학생은 5만5780명으로 2009년(2만6015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수(한국학생 포함)는 13% 감소했다.

현장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다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가치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목회자가 ‘다문화’에 대해 성경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설교하며, 성도들을 양육해야 할지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2년째 다문화 사역을 펼치고 있는 유해근(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목사는 “교회의 다문화 사역은 이미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면서 “교사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적용 교육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회학교 프로그램도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마트 미디어, 전도 핵심 수

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NS의 위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일례로 유기성(선한목자교회) 목사나 김동호(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 목사는 대표적인 ‘페이스북’ 스타다. 각각 ‘친구’ 숫자가 수천~수만 명에 이른다. 이들 목사는 수시로 성경과 목회, 간증, 일상 생활 등의 글을 올려 공유하거나 토론하며 젊은이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노인복지 ‘사각지대’ 사역은 지역교회가=취업 봉사활동 등 노인의 참여활동 정도에 따라 분류한 ‘사회적 고립 비율’(2013)을 보

를 진행했다.

교단은 이번 사태에 따라 당분간 총회사무실을 폐쇄기로 했다. 우종휴 총회장은 “교단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예배를 막고자 난동을 부린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면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총회장은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총회사무실을 폐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장합신은 지난해 9월 제99회 총회에서 신씨측이 성경을 자의적 비유풀이로 해석하고 왜곡한다며 이단관정을 내렸다. 예장합신은 “신씨는 시대를 구약의 절기에 맞춰

사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교회 간 공조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등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평균(30.1%)보다 낮았다.

김선일 웨스턴시스터대 신대원 교수는 “우리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되고 ‘각계전투’로 살아가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역 교회는 주민의 일상으로 뛰어들어 지역 공동체들과 연대하며 소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석하면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왔다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자신만이 이 시대 하나님을 택한 종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자라고 주장하며 자기 우상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정통교회 성도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예배 현장에서 난동을 부린 신도 3명을 집시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기총 이단 해제 이의제기’ 예장통합 등 7곳으로

한기총, 1월 27일 총회에서 향후 절차 논의키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총 7곳으로부터 류광수(다락방),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목사의 이단 해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공식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1월 2일자 29면 참조).

한기총에 따르면 이의제기를 한 교단 및 단체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개혁(총회장 한상훈 목사), 예장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월간 현대종교(소장 탁지원)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예장예장개혁 교단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모두 한기총 비회원 교단 및 단체다.

2014년 파송 선교사 170개국 2만6677명

KWMA집계, 10년새 증가폭 최저...질적 변화 요구돼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는 지난해까지 총 170개국, 2만66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보다 932명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 증가폭으로는 최저다. 또 선교사들이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 계속 파송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8일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산돌중앙교회(신동우 목사)에서 제2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선교사 파송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집계는 KWMA 소속 136개 회원 교단·단체를 비롯해 비회원단체를 포함한 것으로 노회나 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제외됐다.

한국교회는 2011년 2만3331명, 2012년 2만4742명, 2013년엔 2만5745명을 파송했다. 매년 1000~1400명씩 증가하다 2년 전부터 증가세가 줄기 시작했다.

증가세 둔화는 최근 경제위기를 비롯해 젊은 세대 선교사들의 감소 등도 작용했지만 파송수 파악이 어려워지는 것도 큰 이유로 나타났다.

KWMA 한정국 사무총장은 “1000명 미만대로 증가했다고 한국 선교가 하향선을 타고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해마다 파송 선교사를 공개하지 않는 단체 등이 늘고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KWMA에 따르면 10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는 모두 교

한기총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 달 동안 총 7곳으로부터 류광수(다락방),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목사의 이단 해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공식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1월 2일자 29면 참조). 한기총에 따르면 이의제기를 한 교단 및 단체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개혁(총회장 한상훈 목사), 예장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월간 현대종교(소장 탁지원)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예장예장개혁 교단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모두 한기총 비회원 교단 및 단체다.

단선교부로 조사됐다. 예장합동(GMS)과 예장통합, 감리회선교국으로 나타났으며, 교단 선교부보다는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터넷이나 GP선교회, 바울선교회 등 통속 한국 단체는 꾸준히 증가해 인터넷의 경우 2013년에 비해 100명이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된 상위 10개국에 절반 이상인 54.1%의 선교사들이 몰려 있어 더 많은 미전도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속제를 남겼다. 상위 10개국은 동북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일본 남아시아 태국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독일 순이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해까지 720명이 파송돼 2013년보다 117명이 증가했다.

조사에서는 개신교인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 되는 복음화지역에 1만1509명이 파송돼 KWMA가 전략적으로 설정한 2030년까지 필요한 선교사 수를 이미 넘었거나 육박했다. 반면 미전도지역에는 여전히 선교사가 모자라 기독교인이 0~5% 미만 지역에는 2030년까지 필요한 선교사의 10분의 1 수준만 활동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아시아로 동북아시아(6499명)와 동남아시아(5346명)에 집중돼 있다.

교회분쟁 가장 많은 이유는 ‘재정전횡’

교회문제상담소, 작년 상담내역 분석결과 발표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는 교회분쟁 관련 상담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정전횡’으로 문제가 생긴 교회나 기관이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 교회문제상담소는 지난해 대면·전화·이메일 등으로 실시한 상담 131건을 분석, 분쟁 원인 170개를 추려냈다.

상담사례 중 ‘재정전횡’이 원인 있었던 경우는 대면 13건, 전화 32건 등 총 45건이었다. 교회문제상담소는 “재정이 불투명하거나 배임 혹은 횡령 의혹이 제기되면 교회분쟁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에 대한 교인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재정전횡 관련 상담이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교회분쟁의 원인은 목회자와 관련된 게 압도적으로 많았다. 목회자의 ‘독단적 운영’으로 상담을 한 건수가 대면 9건, 전화 28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3위는 ‘교회세습’, 4위는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5위는 ‘설교 표절 등 목회자 윤리’가 차지했다. 전체 131건의 상담건수 가운데 목회자와 무관하게 교회분쟁이 생긴 경우는 11건에 지나지 않았다.

교회문제상담소는 분쟁 원인이 담임 목회자에 집중되는 이유를 ‘권력에서 찾았다. 교회문제상담소는 “상담 주제 대부분이 담임목사와 관련돼 있다”며 “한국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담임목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데, 목회자의 ‘불통’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상담을 한 사람들의 직분은 집사와 장로에 편중돼 있었다. 직분을 밝힌 51명의 내담자 가운데 집사 19명(37.3%), 장로는 13명(25.5%)으로 둘을 합하면 절반이 넘었다. 목회자(8명)와 청년·평신도(7명), 권사(4명)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교회문제상담소는 “집사와 장로가 교회 운영에 직접 관여하면서 상담을 신청하기 때문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회문제상담소는 “상담자 중 직무정지처분이나 공동의회결의무효소송 등을 제기했거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았다”며 “교회법에 따른 재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법에 호소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교의 창 (23)

기독교 선교의 두가지 축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2015년 올미년의 해가 밝았다. 올해 세상은 어떻게 요동칠 것인가? 한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다. 거친 세상, 도전하는 세력에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지 어언 2014년이 되었다. 초대 안디옥교회를 발원지로 그간 교회는 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타민족 선교를 이루어왔다. 소아시아와 로마로 그리고 서유럽을 통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로 복음이 확장되었으며 이제 아시아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그 찬란했던 초대교회와 서구교회가 지금 어디 있는나라는 것이다.

과거의 한 때 사명을 감당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생물학적 전철을

실기에 들어서면 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죽어간다. 그리고 새로이 복음을 받은 교회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은 후 소리 없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다. 왜 교회가 지역을 바꾸어 가면서 흥망 성쇠를 반복하는 것인가?

교회가 시대마다 부흥하고 쇠퇴한 데에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다. 선교학자 Herbert Kane은 북아프리카 교회가 몰락하고 이슬람화한 원인을 정치사회학적 과 선교학적으로 해석했다. Charles J. Speel은 정치와 종교의 합작품인 '반달 아리안주의'(Vandal arianism)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흐름은 교회의 흥망성쇠 현상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대물림하는 수직선교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다.

3. 구원의 계획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래로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사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창 3:15절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그 씨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다(창 12:1-3; 마1장). 그래서 마태복음 1: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인을 중심으로 한 가정사역이 본질이라면(창18:19; 신6:4-9), 신약의 지상명령은 구원받은 교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사역이 본질이다(마28:19-20, 행1:8). 전자가 수직선교라면 후자는 수평선교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직선교는 잘했지만 수평선교를 못했고 기독교인들은 수평선교는 잘하지만 수직선교를 못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를 배우고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자녀들을 제자 삼아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가를 배우면 된다. 전자

왜 초대교회는 세계선교에 성공했으면서 2천년간 살아남지 못했는가? 어떻게 유대인은 4천년간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는가?

밝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상인가? 만일 아니라면 왜 역사적 족적을 남겼던 수많은 교회들이 자취를 감추었는가? 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인 세계선교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수직선교는 실패했는가? 구약의 지상명령, 쉼마를 잃어버리고 신약의 지상명령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 한국선교는 더 이상 서구가 갈아놓은 수평선교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한 기존의 수평선교를 지속하되 가정을 통한 수직선교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언젠가는 서구교회 궤적을 따라 쇠락해갈 수밖에 없다. 이미 그 증상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1. 문제의 진단
교회사를 보면 한 때 흥왕하던 교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하고 소멸하기를 반복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발아, 성장, 개화, 결실, 쇠퇴,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은 보통200-300년을 주기로 한다. 한 교회가 성장, 개화, 결

나 역사 개입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복음의 서진론으로 전개되며 장차 Back to Jerusalem 운동으로 종결된다는 견해이다. 아무튼 여러 이론들이 의미 있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나 근본 해답은 될 수 없다.

2. 역사적 예증

교회는 원론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신약교회가 오래 가지 못하고 안개처럼 소멸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순전히 인간의 오류 때문이다. 그간 교회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오로지 수평적 선교에 치중해왔다.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처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수직선교를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았다 해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남은 살리는 선교는 큰 업적을 남겼지만 불행히도 모 교회는 세월과 함께 없어졌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4,2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며 모진 핍박 가운데 인고의 세월을 보내왔다. 현대 이스라엘은 장구한 세월과 고난에도 세대 차 없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튼튼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말씀전수가 되어왔다. 그들의 생존비결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와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다.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전수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이다(창 18:19).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가 정한 때에 오실 수 있었을까?

4. 두 명령의 상호성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두 가지 지상명령을 주셨다. 구약의 지상명령은 초림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함이고 신약의 지상명령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전자가 '쉼마'에 기초한 가정사역의 사명이라면, 후자는 교회공동체가 해야 할 이웃전도와 세계선교의 사명이다. 전자는 부모가 가정이라는 성전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면, 후자는 목회자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구원받은 이웃들을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일이다.

구약의 지상명령이 혈통적 유대

는 구원사적 접근이고 후자는 교육신학적 접근이다.

맺는 말

초대교회 죽었다. 유럽교회 다수가 죽었다. 미국교회 죽어가고 있다. 한국교회 죽기 시작했다. 교회가 이렇게 일정기간 역할을 하다 소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핵심은 선교학의 부재다. 지금까지 선교신학은 사마리아나 땅 끝이라는 수평적 선교에만 귀착되어왔다. 그러기에 수직선교를 간과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많은 교회가역사의 장에서 사라져 갔다.

수직선교가 없는 수평선교는 힘을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자손 대대로 말씀을 대물림 하는 수직선교의 기초 위에서 열방을 향한 수평 선교가 진행되어야 한다. 성령의 충매는 결코 지역을 바꾸어가며 교회를 쓰신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무책임 때문 파생되는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로 합리화하는 신학을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선교칼럼

위기의 교회와 선교



김호동 목사 (GMS 선교총무)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교계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으나 그 자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교단적인 차원에 대책도 없으니 심각한 일이다.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작금의 어려운 교회의 사정은 그 원인을 경제 사정이 나빠서 그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교회는 그 모습이 서구화 되어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여가문화도 발달하고 또한 주5일 근무로 인하여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 보다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자연히 교회 예배 출석수가 감소하고 분주한 사회 환경으로 전도 역시 힘들어지며 이런 요소들이 교회 재정 압박으로 이어져 교회의 외적 위기요인이 된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도 교회가 그 맛을 잃고 결집력이 둔화되는 것이 근본적인 위기의 요인으로 주목된다.

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 교계지도자는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 사랑과 봉사, 연합과 일치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선행과 성화를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밖에서 교회의 위기상황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동아논평(2011.4.25)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종교적 가치의 회복에 있으며, 그동안 한국 교회가 집착해온 물질 명예 권력 등에서 탈피하고 대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식을 주는 본연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종교적 가치를 상실하였다는 것은 교회가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 본질을 상실 하고 있으며 존재 이유를 잃고 비본질적인 일에 몰두하게 된 결과로 교회는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이다. 입맛 까다로운 성도들은 이런 교회를 떠나고 기성 성도들은 무기력화 되어 교회가 그 존재 가치를 잃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의 지탄을 받아 사면초가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라이트(N. T. Wright)도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선교적 교회운동의 창시자로 알려진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견해와 같이 "교회는 선교적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선교로 탄생하였고 선교사들의 선교로 탄생하였으므로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며 그 존재목적도 선교라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선교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선교와 전도는 그 형식에 차이 있을 지라도 내용과 목적이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목적과 존재 이유를 찾아서 교회의 가치를 회복하여 위기시대를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선교적인 삶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대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셨다. 이것은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역시 각자 위치에서 말을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며, 이러한 성도들로 인해 교회가 건강하게 되며, 건강한 교회가 그 바른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오늘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추진력을 얻어 그 난관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룩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
레위기 속에 감춰진 값진 보화, 거룩의 재발견!
이 시대 탁월한 복음의 스토리텔러 소강석 목사가 들려주는
철저한 레위기 본문의 분석과 견고한 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감동의 거룩 시네마!
거룩의 향기는 제단으로부터 시작한다!

259원 / 11,000원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한번은 읽어야 할
완전한, 참 거룩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필독서!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션 루터 킹 페어리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교신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생명나무	503원 / 16,000원	스택을 넘어 스트로리 만들기!	315원 / 12,000원
사막의 열매	264원 / 10,000원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	288원 / 11,000원

금란출판사 • 한글민터주소 : 금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gumr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선교 펴기

아르헨티나

생명성 쉼터교회 2015년 (말씀)표어-시편 67편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셀라)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셀라)

5.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7.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생명성 쉼터"사역보고

1. 2014년 5월과 6월 사이에 귀국 및 수영로교회 방문: 같은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사도행전 목상을 통해 초대교회에 일어난 다락방

기도회 중심으로 혼합일체의 사역을 하게 인도했습니다. 선교센터 "엘레브"에서 임훈철/산드라 선교사 부부는 혼합일체의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21세기에도 이러한 운동이 중남미에 선교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 교회 활동:

선교지 아르헨티나 멘도사 에 도착하여 이러한 비전을 성도들과 협력 교회들과 나누고 다락방의 영성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볼리비아 고산지역 여전도 연합회

▷매주일설교 "요한복음 강해", 주간목사 5월-10월 사도행전, 11-12월 로마서, 주간 평균출석 25명, 특별집회 때 50-60명, 어린이 3명, 청년부 5-10명, 주간 사랑방 모임 3곳 계속 출석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 전도대회 2회: 1)2014년 9월20일, 주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새신자 참석 35명 2)보뜨레리료 선교센터 2014년 11월23일 주제 "거듭나야 하리라" 새신자 참석

인 40여명.

▷시내 모임장소가 협소해서 내년에는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합니다.

▷페루 피우라 협력 교회 3곳 대적지는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멘도사 후안 목사님 교회는 3곳 지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3. 노년호스피스 사역:

▷노년봉사 활동은 계속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가정 심방/케어와 양

리야스 회장을 통해 볼리비아 대통령궁에 초대 받고 "신화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을 정부요인 6명에게 전했습니다. 볼리비아 기독교 대표들에게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정필도 목사의 책 10권과 이용걸 목사님의 "여호수아 강해" 책을 10권 전했습니다.

4. 볼리비아 사역(선교센터 구입): 멘도사에서 50분 거리에 있는 보뜨레리료스의 살포 지역(부지 3,700m2, 건물 6개, 식당, 부엌, 수영장, 적은 호수 등) 10월 말에 인수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부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2015년 선교센터 수리(전기, 가스, 상수도/하수도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동산지기(관리인)를 구해야 하고, 담장 수리 등으로 치안 보안장치와 관리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선교센터를 통해(2015년 사역계획) 목회자, 교회 봉사자, 단기선교 팀, 청소년 지도자 등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볼리비아 사역(선교센터 구입): 멘도사에서 50분 거리에 있는 보뜨레리료스의 살포 지역(부지 3,700m2, 건물 6개, 식당, 부엌, 수영장, 적은 호수 등) 10월 말에 인수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부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2015년 선교센터 수리(전기, 가스, 상수도/하수도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동산지기(관리인)를 구해야 하고, 담장 수리 등으로 치안 보안장치와 관리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선교센터를 통해(2015년 사역계획) 목회자, 교회 봉사자, 단기선교 팀, 청소년 지도자 등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범 교회 지역 활동. ▷선교센터 옆에 땅 매입 계획: 2200m2 가격 약 5만불, 빌라하우스와 센터의 부대시설을 위해 ▷아르헨티나중앙교회 스타렉스 2002년형 기증: 수리비 필요 약 2000불. 임훈철/산드라 선교사 올림 hoonchelim@gmail.com

리야스 회장을 통해 볼리비아 대통령궁에 초대 받고 "신화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을 정부요인 6명에게 전했습니다. 볼리비아 기독교 대표들에게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정필도 목사의 책 10권과 이용걸 목사님의 "여호수아 강해" 책을 10권 전했습니다.

4. 볼리비아 사역(선교센터 구입): 멘도사에서 50분 거리에 있는 보뜨레리료스의 살포 지역(부지 3,700m2, 건물 6개, 식당, 부엌, 수영장, 적은 호수 등) 10월 말에 인수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부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2015년 선교센터 수리(전기, 가스, 상수도/하수도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동산지기(관리인)를 구해야 하고, 담장 수리 등으로 치안 보안장치와 관리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선교센터를 통해(2015년 사역계획) 목회자, 교회 봉사자, 단기선교 팀, 청소년 지도자 등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볼리비아 사역(선교센터 구입): 멘도사에서 50분 거리에 있는 보뜨레리료스의 살포 지역(부지 3,700m2, 건물 6개, 식당, 부엌, 수영장, 적은 호수 등) 10월 말에 인수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부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2015년 선교센터 수리(전기, 가스, 상수도/하수도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동산지기(관리인)를 구해야 하고, 담장 수리 등으로 치안 보안장치와 관리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선교센터를 통해(2015년 사역계획) 목회자, 교회 봉사자, 단기선교 팀, 청소년 지도자 등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범 교회 지역 활동. ▷선교센터 옆에 땅 매입 계획: 2200m2 가격 약 5만불, 빌라하우스와 센터의 부대시설을 위해 ▷아르헨티나중앙교회 스타렉스 2002년형 기증: 수리비 필요 약 2000불. 임훈철/산드라 선교사 올림 hoonchelim@gmail.com

헝가리 부다페스트

Dear, 기도와 사랑, 또는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며, 평안하시지요? 매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기도와 사랑, 또는 물질로 후원해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가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으로 책임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감사!

1. 2015년 첫 주일, "쇼&빌라고사그(소금과빛)교회" 10주년 감사예배를 새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처음엔, 2003년 부활절부터 "서서티 커뮤니티교회"를 개척했는데, 2004년 겨울 금식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사58장)의 말씀을 깨닫고, 새 미션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노숙자들을 위한 거리교회로 10년 간 남부역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예배당에서 예배와 영성훈련, 재할을 돕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월요일과 화요일 거리교회는, 계속 남부역과 히타르 역에서 영육간의 금식사역 합니다.

2. 금식기도회(12/29-31일)에 일곱 명이 참여하여,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특히 '기도사 학교' 헝가리어 번역책자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기도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절친인을 남기리니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19:18).

3. '산도르'가 저희와 함께 살면서, 예배당 사찰정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12월 14일 부터).

4. 봉사자들 아홉 명과 함께 한국음식을 나누면서 일년 사역 평가회(12월 6일)를 가졌습니다. -피테르, 클라라, 벨리카, 주저, 까피, 일디코, 처버, 아그네스, 타마쉬

5. 집시 슬럼가 "회쉬 거리"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사역에 은혜가 많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태어나 헝가리어를 잘 하는 한국인 고등학생 크리스티나, 에스테르 자매가 부모이신 최&원 집사님과 함께 주일 오후에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6. 저희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12월 15일).

기도제목

▷"쇼&빌라고사그(소금과빛)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며, 영혼육의 재활센터가 되게 하소서! 노숙자들, 독거인들, 집시들, 헝가리인과 결혼한 중국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일어린이학교"를 통해 집시 어린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게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거짓말, 싸움, 성적문란, 마약, 알콜, 담배, 도박질... 등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거리교회"로 계속 금식사역을 하는 월요일 히타르역, 화요일 남부역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며 그들이 재할할 수 있게 하소서!

▷집시 슬럼가 두 곳(회쉬 거리/킨 거리)의 "가정교회"를 통해 가정 변화되고 새롭게 하소서! -피테르& 존지 가정교회/ 임레& 잇쉴 가정교회/ 일디 가정교회

▷동역자들,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더 주게 헌신하도록! -피테르, 클라라, 안드라쉬 & 벨리카, 주저, 벤체, 디네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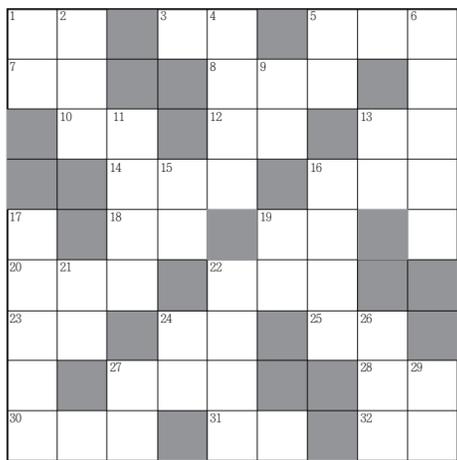
▷저희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김흥근 선교사의 눈이 녹내장으로 시야가 더 좁아지지 않도록, 서명희 선교사의 목이 회복되도록(독감후유증)

감사드리며, God bless you!

헝가리 흥부 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드림

십자말 • Cross Word (64)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나라나 집안이 잘 다스려져서 조용하여 무사하고 평안함(사3:11).
3. 우레소리(계4:5).
5. 더베인이나 바울을 따라 아시아까지 간 사람(행20:4).
7. 매우 평안함(스5:7).
8. 하는 수 없이. 불가불(고전9:16).
10. 일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포함(잠14:22).
12. 거룩한 제사장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의복(출29:29).
13. 남에게 좌석이나 길이나 물건 따위를 사양함(국어상식).
14. 세력으로 누르고 구박하는 사람(시119:121).
16.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OOO과...(대하1:2).
18.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겸한 사람(왕하23:22).
19. 잘생긴 아이(신23:17).
20.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OOO을 권하고...(골1:28).
22. 12월 31일이 되면 종로 이곳에서 종이 울린다(상식).
23. 아직 남은 희망(행27:20).
24. 많지 않게(요16:16).
25.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함(삼하19:27).
27.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욘33:23).
28. 신주 또는 화상을 받들어 모심(대상28:2).
30. 이르시되 OOO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눅10:2).
31. 로마에 있는 교우로 바울에게 부탁하여 디모데에게 문안하였다(딤후4:21).
32. 왕의 자리(눅19:12).

<세로 푸는 열쇠>

1. 게으르고 느림(렘48:10).
2. 북한 서북에 있는 도. 평양과 신의주가 있는 도(한국 지리).
4.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하신 아들.
5. 아셀지파의 변경에 있는 성읍(수19:27).
6. 외면상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은 같다는 의미(고사성어).
9. 뜻을 이룸(잠28:12).
11. 또 모양을 치매 OOO이 다윗의 종(대상18:2).
13. 이쪽과 저쪽(신19:17).
15. 영어로 닥터(마2:1).
16. 고을마다 모든 곳(눅10:1).
17. 몹시 기다려지거나 지루함을 나타내는 말(고사성어).
19. 마음이 무엇에 끌리어 잘못 믿거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종교적 신앙처럼 맹신하는 일(상식).
21. 사람의 죽음(고전15:55).
22. 포근하고 아늑한 집(잠27:8).
24. 아침과 저녁(욘4:20).
26. 봉건시대에 천자가 땅을 나누어준 지역에서 다스리던 왕(행13:1).
27. 야곱을 OO 사술이 없고...(민23:23).
29.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고서 조용히 위로함(롬1:12).

십자말 정답



미주 갈멜산기도원 신년 축복 기도성회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날짜 2015년 1월 22일(목) ~ 2월 5일(목)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2015년 조성근 목사 부흥성회 일정

1 일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2 일	2 ~ 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3 일	2 ~ 4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4 일	1 ~ 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 일	4 ~ 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9 ~ 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6 ~ 8일 용인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1 ~ 19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9 ~ 11일 (합동)태백시찰 연합성회		13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16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6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 ~ 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22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23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11 ~ 13일 (합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23 ~ 25일 동종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27 ~ 29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FM사모사역원 원장)

10.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비전 가꾸기(3)

Class 2-Botiphar's house

요셉이 다니는 광야학교에서 공부하는 두 번째 교실은 보디발의 집입니다.(창39:1-3).
요셉이 구덩이에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싸우고 있을 때 형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구덩이의 교실보다 더 어려운 교실입니다. 부모도 없고 정든 집도 없는 타향은 요셉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종으로 살아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기를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이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체면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정과 욕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장소, 홀로 있는 곳에서 사람은 약해지는 법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을 버리고 눈이 맞으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얼마나 될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대낮에 목욕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힘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마귀는 이런 기회를 포착하여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요즘 공개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사모들을 적지 않게 걱정하게 합니다. 사모들을 위

보디발의 집에서 죄 거절하는 방법 철저히 훈련 코람데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인내 배워

야하기에 그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합니다. 이런 생활은 과거에는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낯선 일들이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풍속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 요셉의 삶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마침내 모든 열쇠를 맡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창39:4,5).

Curriculum-유혹(Temptation)

요셉은 이 교실의 커리큘럼을 따라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은 상황속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그의 부인은 요셉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거나 향수 냄새를 요란스럽게 내며 웅크려 오는 유혹을 이기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찌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오히려 출세 길에 큰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둘째 교실에서 성실하게 충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창39:7).

Test, Train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서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의 거절하는 자세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How to Fight-죄의 거절(Resist Sin), 인내(Endurance)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한 전문 전화 상담실이 처음 생겼던 당시만 해도(1986년) 이런 문제는 쉬워했습니다. 사모들의 고민을 털어 놓을 곳도 없고 더더욱 성문제는 병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했습니다. 교회에 알려질까봐 가슴조이며 밤잠 설치는 사모들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정신병원의 신세까지 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것으로 인해 사모들의 가슴은 편지 않아 울며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상담할 곳이 여기 저기 생기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안타까운 것은 신랄하게 드러나서 가정은 물론 교회가 동감하는 일들로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교실에서는 ‘사모의 침실 가꾸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에 대한 지식이 많이 공개화 되어가는 현대에서도 아직까지 감추어진 성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사모들의 풀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 교실에서 죄를 거절하는 방법을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그대로 지킨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절실히 알고 있는 동시에 자신이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피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강한 유혹도 이런 요셉의 강인함 앞에 무력하였습니다. 건디기 힘든 과정을 통과하므로 인내를 터득하였습니다.

Diploma-Glorify God by our Holiness

그 결과 다른 어떤 죄보다 이기기 힘든 죄를 이긴 요셉은 마침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거룩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성령이 인도하는 구속의 은혜(롬8:24-28)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립니다. 주께서 세상과 사탄 그리고 야담의 부패성의 모든 굴레를 끊으시고 참 해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온통 그리스도에게만 무게를 둘 때 찾아옵니다. 둘째, 성령은 이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 도우러 오셨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같이 그르치기 잘하는 우리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란 아무도 없고 이 땅에서

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자생활의 목표가 되어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에 세우신 구속입니다. 그것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의 흐름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요소도 있지만 주로 점진적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인도에 신실합니다.

화 복음의 도미노 현상(롬10:16-21)찬353장

본문은 우리의 구원과정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5단계로 이뤄진 구원, 1)부르심-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2)전파하심-부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3)듣음-전파된 복음을 들음으로 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들음은 구원의 첫 접촉점입니다. 4)마음의 믿음-들은 복음 곧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요1:12-13)입니다. 그리고 6)입술의 고백-믿음은 입술로 표현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영적 도미노현상을 이 개인구원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둘째, 은혜를 받은 후(20-21)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은 은혜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와 모세의 탄식인 역사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먼 저 됐다던 먼저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나중이라고 나중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잘 관리하는 자만이 상을 받습니다. 참 은혜는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수 하나님의 주권(롬11:36)찬503장

칼빈주의자의 구절이라고 일컫는 본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귀결시키는 역사와 신자의 세계관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요 신자는 그의 피조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창조자라면 다른 하나는 생명의 창조자란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서 모든 부요가 나오고 그와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둘째,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창조세계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이 구원 받은 새생활의 모든 과정을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셋째,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들어감은 창조의 결과와 구속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의를 드러냄으로 구원은 그의 사랑을 드러냄으로 하나님 구원을 주도하시고 이루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목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롬16:17-27)찬408장

로마서 마지막에 서론의 가르침이 반복됩니다. 구원의 복음에 헌신된 바울은 ‘내 복음’이라 했고 그 기원을 창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비밀의 나타남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계시를 받은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비밀을 더 깊이 알도록 성령의 조명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바른 복음에 거짓교훈이 일어나는 것은 장소가 세상이고 육체의 부패성이 항상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나 자신이 항상 바른 복

음 안에 잘 머무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셋째, 창 3:15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전능자는 주로 평강과 고요와 겸손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속히 사탄을 파시는 복음의 능력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교회가 머물 자리는 바로 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은혜를 통해 임하는 열매이기에 사모하고 갈구해야 합니다.

금 복의 근원(롬15:29)찬28장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갈 때 가지고 갈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갈 때에 그리스도의 총명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롬15:29). 첫째, 복음은 그들에게만 아니라 온 세계의 각 종족, 각 언어, 각 문화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주적인 것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진 복입니다(행16:31). 그것이 모든 불행의 근본 뿌리인 죄를 해결하는 유일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요1:12-13). 복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며 그 복의 총만은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되고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노력입니다.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고 모든 일의 최상의 길이 들어있고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토 십자가 복음(고전2:1-16)찬367장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첫째,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자연인(12), 둘째, 육에 속한 사람(14) 그리고 셋째, 신령한 자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첫째, 고린도교회의 분쟁은 인간주의 때문인데 그 뿌리는 육신의 소욕에 있었습니다. 성령 받아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결코 자연인이 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인도를 거절해 자기 육욕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

가중심을 떠나 인간중심으로 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육에 속한 마음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고 계속 그 보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 바울의 문제해결의 키는 십자가복음으로 돌아가 거기에 머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속자를 아는 지식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그리고 생명으로 삼았다. 영광스러운 십자가 복음에 머물기 위해 힘칩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주일아침예배: 오후 9:00 Tel. (031)977-3300-9, Fax. (031)977-8382 (주)10-831-1111(주)11-1111(주)12-1111(주)13-1111(주)14-1111(주)15-1111(주)16-1111(주)17-1111(주)18-1111(주)19-1111(주)20-1111(주)21-1111(주)22-1111(주)23-1111(주)24-1111(주)25-1111(주)26-1111(주)27-1111(주)28-1111(주)29-1111(주)30-1111(주)31-1111(주)32-1111(주)33-1111(주)34-1111(주)35-1111(주)36-1111(주)37-1111(주)38-1111(주)39-1111(주)40-1111(주)41-1111(주)42-1111(주)43-1111(주)44-1111(주)45-1111(주)46-1111(주)47-1111(주)48-1111(주)49-1111(주)50-1111(주)51-1111(주)52-1111(주)53-1111(주)54-1111(주)55-1111(주)56-1111(주)57-1111(주)58-1111(주)59-1111(주)60-1111(주)61-1111(주)62-1111(주)63-1111(주)64-1111(주)65-1111(주)66-1111(주)67-1111(주)68-1111(주)69-1111(주)70-1111(주)71-1111(주)72-1111(주)73-1111(주)74-1111(주)75-1111(주)76-1111(주)77-1111(주)78-1111(주)79-1111(주)80-1111(주)81-1111(주)82-1111(주)83-1111(주)84-1111(주)85-1111(주)86-1111(주)87-1111(주)88-1111(주)89-1111(주)90-1111(주)91-1111(주)92-1111(주)93-1111(주)94-1111(주)95-1111(주)96-1111(주)97-1111(주)98-1111(주)99-1111(주)100-1111(주)101-1111(주)102-1111(주)103-1111(주)104-1111(주)105-1111(주)106-1111(주)107-1111(주)108-1111(주)109-1111(주)110-1111(주)111-1111(주)112-1111(주)113-1111(주)114-1111(주)115-1111(주)116-1111(주)117-1111(주)118-1111(주)119-1111(주)120-1111(주)121-1111(주)122-1111(주)123-1111(주)124-1111(주)125-1111(주)126-1111(주)127-1111(주)128-1111(주)129-1111(주)130-1111(주)131-1111(주)132-1111(주)133-1111(주)134-1111(주)135-1111(주)136-1111(주)137-1111(주)138-1111(주)139-1111(주)140-1111(주)141-1111(주)142-1111(주)143-1111(주)144-1111(주)145-1111(주)146-1111(주)147-1111(주)148-1111(주)149-1111(주)150-1111(주)151-1111(주)152-1111(주)153-1111(주)154-1111(주)155-1111(주)156-1111(주)157-1111(주)158-1111(주)159-1111(주)160-1111(주)161-1111(주)162-1111(주)163-1111(주)164-1111(주)165-1111(주)166-1111(주)167-1111(주)168-1111(주)169-1111(주)170-1111(주)171-1111(주)172-1111(주)173-1111(주)174-1111(주)175-1111(주)176-1111(주)177-1111(주)178-1111(주)179-1111(주)180-1111(주)181-1111(주)182-1111(주)183-1111(주)184-1111(주)185-1111(주)186-1111(주)187-1111(주)188-1111(주)189-1111(주)190-1111(주)191-1111(주)192-1111(주)193-1111(주)194-1111(주)195-1111(주)196-1111(주)197-1111(주)198-1111(주)199-1111(주)200-1111(주)201-1111(주)202-1111(주)203-1111(주)204-1111(주)205-1111(주)206-1111(주)207-1111(주)208-1111(주)209-1111(주)210-1111(주)211-1111(주)212-1111(주)213-1111(주)214-1111(주)215-1111(주)216-1111(주)217-1111(주)218-1111(주)219-1111(주)220-1111(주)221-1111(주)222-1111(주)223-1111(주)224-1111(주)225-1111(주)226-1111(주)227-1111(주)228-1111(주)229-1111(주)230-1111(주)231-1111(주)232-1111(주)233-1111(주)234-1111(주)235-1111(주)236-1111(주)237-1111(주)238-1111(주)239-1111(주)240-1111(주)241-1111(주)242-1111(주)243-1111(주)244-1111(주)245-1111(주)246-1111(주)247-1111(주)248-1111(주)249-1111(주)250-1111(주)251-1111(주)252-1111(주)253-1111(주)254-1111(주)255-1111(주)256-1111(주)257-1111(주)258-1111(주)259-1111(주)260-1111(주)261-1111(주)262-1111(주)263-1111(주)264-1111(주)265-1111(주)266-1111(주)267-1111(주)268-1111(주)269-1111(주)270-1111(주)271-1111(주)272-1111(주)273-1111(주)274-1111(주)275-1111(주)276-1111(주)277-1111(주)278-1111(주)279-1111(주)280-1111(주)281-1111(주)282-1111(주)283-1111(주)284-1111(주)285-1111(주)286-1111(주)287-1111(주)288-1111(주)289-1111(주)290-1111(주)291-1111(주)292-1111(주)293-1111(주)294-1111(주)295-1111(주)296-1111(주)297-1111(주)298-1111(주)299-1111(주)300-1111(주)301-1111(주)302-1111(주)303-1111(주)304-1111(주)305-1111(주)306-1111(주)307-1111(주)308-1111(주)309-1111(주)310-1111(주)311-1111(주)312-1111(주)313-1111(주)314-1111(주)315-1111(주)316-1111(주)317-1111(주)318-1111(주)319-1111(주)320-1111(주)321-1111(주)322-1111(주)323-1111(주)324-1111(주)325-1111(주)326-1111(주)327-1111(주)328-1111(주)329-1111(주)330-1111(주)331-1111(주)332-1111(주)333-1111(주)334-1111(주)335-1111(주)336-1111(주)337-1111(주)338-1111(주)339-1111(주)340-1111(주)341-1111(주)342-1111(주)343-1111(주)344-1111(주)345-1111(주)346-1111(주)347-1111(주)348-1111(주)349-1111(주)350-1111(주)351-1111(주)352-1111(주)353-1111(주)354-1111(주)355-1111(주)356-1111(주)357-1111(주)358-1111(주)359-1111(주)360-1111(주)361-1111(주)362-1111(주)363-1111(주)364-1111(주)365-1111(주)366-1111(주)367-1111(주)368-1111(주)369-1111(주)370-1111(주)371-1111(주)372-1111(주)373-1111(주)374-1111(주)375-1111(주)376-1111(주)377-1111(주)378-1111(주)379-1111(주)380-1111(주)381-1111(주)382-1111(주)383-1111(주)384-1111(주)385-1111(주)386-1111(주)387-1111(주)388-1111(주)389-1111(주)390-1111(주)391-1111(주)392-1111(주)393-1111(주)394-1111(주)395-1111(주)396-1111(주)397-1111(주)398-1111(주)399-1111(주)400-1111(주)401-1111(주)402-1111(주)403-1111(주)404-1111(주)405-1111(주)406-1111(주)407-1111(주)408-1111(주)409-1111(주)410-1111(주)411-1111(주)412-1111(주)413-1111(주)414-1111(주)415-1111(주)416-1111(주)417-1111(주)418-1111(주)419-1111(주)420-1111(주)421-1111(주)422-1111(주)423-1111(주)424-1111(주)425-1111(주)426-1111(주)427-1111(주)428-1111(주)429-1111(주)430-1111(주)431-1111(주)432-1111(주)433-1111(주)434-1111(주)435-1111(주)436-1111(주)437-1111(주)438-1111(주)439-1111(주)440-1111(주)441-1111(주)442-1111(주)443-1111(주)444-1111(주)445-1111(주)446-1111(주)447-1111(주)448-1111(주)449-1111(주)450-1111(주)451-1111(주)452-1111(주)453-1111(주)454-1111(주)455-1111(주)456-1111(주)457-1111(주)458-1111(주)459-1111(주)460-1111(주)461-1111(주)462-1111(주)463-1111(주)464-1111(주)465-1111(주)466-1111(주)467-1111(주)468-1111(주)469-1111(주)470-1111(주)471-1111(주)472-1111(주)473-1111(주)474-1111(주)475-1111(주)476-1111(주)477-1111(주)478-1111(주)479-1111(주)480-1111(주)481-1111(주)482-1111(주)483-1111(주)484-1111(주)485-1111(주)486-1111(주)487-1111(주)488-1111(주)489-1111(주)490-1111(주)491-1111(주)492-1111(주)493-1111(주)494-1111(주)495-1111(주)496-1111(주)497-1111(주)498-1111(주)499-1111(주)500-1111(주)501-1111(주)502-1111(주)503-1111(주)504-1111(주)505-1111(주)506-1111(주)507-1111(주)508-1111(주)509-1111(주)510-1111(주)511-1111(주)512-1111(주)513-1111(주)514-1111(주)515-1111(주)516-1111(주)517-1111(주)518-1111(주)519-1111(주)520-1111(주)521-1111(주)522-1111(주)523-1111(주)524-1111(주)525-1111(주)526-1111(주)527-1111(주)528-1111(주)529-1111(주)530-1111(주)531-1111(주)532-1111(주)533-1111(주)534-1111(주)535-1111(주)536-1111(주)537-1111(주)538-1111(주)539-1111(주)540-1111(주)541-1111(주)542-1111(주)543-1111(주)544-1111(주)545-1111(주)546-1111(주)547-1111(주)548-1111(주)549-1111(주)550-1111(주)551-1111(주)552-1111(주)553-1111(주)554-1111(주)555-1111(주)556-1111(주)557-1111(주)558-1111(주)559-1111(주)560-1111(주)561-1111(주)562-1111(주)563-1111(주)564-1111(주)565-1111(주)566-1111(주)567-1111(주)568-1111(주)569-1111(주)570-1111(주)571-1111(주)572-1111(주)573-1111(주)574-1111(주)575-1111(주)576-1111(주)577-1111(주)578-1111(주)579-1111(주)580-1111(주)581-1111(주)582-1111(주)583-1111(주)584-1111(주)585-1111(주)586-1111(주)587-1111(주)588-1111(주)589-1111(주)590-1111(주)591-1111(주)592-1111(주)593-1111(주)594-1111(주)595-1111(주)596-1111(주)597-1111(주)598-1111(주)599-1111(주)600-1111(주)601-1111(주)602-1111(주)603-1111(주)604-1111(주)605-1111(주)606-1111(주)607-1111(주)608-1111(주)609-1111(주)610-1111(주)611-1111(주)612-1111(주)613-1111(주)614-1111(주)615-1111(주)616-1111(주)617-1111(주)618-1111(주)619-1111(주)620-1111(주)621-1111(주)622-1111(주)623-1111(주)624-1111(주)625-1111(주)626-1111(주)627-1111(주)628-1111(주)629-1111(주)630-1111(주)631-1111(주)632-1111(주)633-1111(주)634-1111(주)635-1111(주)636-1111(주)637-1111(주)638-1111(주)639-1111(주)640-1111(주)641-1111(주)642-1111(주)643-1111(주)644-1111(주)645-1111(주)646-1111(주)647-1111(주)648-1111(주)649-1111(주)650-1111(주)651-1111(주)652-1111(주)653-1111(주)654-1111(주)655-1111(주)656-1111(주)657-1111(주)658
--	---

21세기 선교 패러다임

미완성과업 완수를 위한 교회연합 (하)



박신욱 선교사
전 아르헨티나 선교사, 전 미주복음방송 사장
현 SEED International 국제총무이사

3.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체

독립선교단체는 교회나 교단이 선교하지 않을 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일어났고, 지난 세기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자원의 고갈과 선교사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로 인해서 선교단체는 선교자원 동원의 어려움과 선교사 개인사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선교는 가장 현실적이고 성경적인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소속 교회들이 연합되어있기 때문에 선교자원의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팀선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단

Great Commission Fund를 위해 헌금하여 교단 선교부로 보내고, 남침례교단은 소속교회가 해마다 성탄주일 헌금을 교단 선교부로 보내어 교단선교부가 이를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선교사들은 교단에서 일정의 생활비 외에도 자녀교육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받고, 선교사 훈련과 선교지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 받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모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안식년 기간에 교단이 선정해주는 소속교회들을 방문하여 선교대회 강사로 섬기며 지역교회의 선교동원 사역에 기여해야 합니다.

교단이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비를 책임지는 만큼, 교단 선교부는

(?)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합을 통한 공동사역은 놀라운 시너지가 나고 교회에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목회적인 관점에서 손해 볼 것이 없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미개척/미전도지역의 프런티어 선교는 많은 선교자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교회가 연합하여 선교자원이 집중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프런티어 선교지에 공동선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수의 선교팀 동시 파송: △언어습득 가능한 20-30대 목사신교사로 구성된 교회개척팀 △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선교팀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선교팀(신학교 포함) △출판, 방송, 미디어, 비즈니스

만한 복음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는 선교사역의 세 단계가 필요한데 1)교회개척 2)제자훈련 3)지도자양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단계가 지역적으로 재생산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개척분리를 통한 인근지역에 다수의 교회개척 △제자훈련과 신학교 설립을 통한 현지인 목회자 양성 △현지인 목회리더십 이양과 자립 △선교지 확장과 선교사 재배치 △의료, 교육, 출판, 미디어 등 특수사역의 지속적인 지원 △은퇴 평신도 전문인력을 통한 선교본부 운영으로 선교사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선교지에 투입.

로 신약의 초대교회 선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천년전, 바울이 교회의 파송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던 곳은 모두가 미개척/미전도종족이었고, 바울로서는 위험한 선교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교회는 유대인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나 하나였고 연합하였습니다. 3차 사역을 마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은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거액의 연보를 기금을 당한 유대인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투리곤을 넘어 서바나로 갈 것을 교회에 도전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성령께서 함께 행하여 이루어주셨습니다.

지막으로 풀러신학교의 선교학교수인 Charles E. Van Engen 교수의 '교회와 선교'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Charles E. Van Engen: "선교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일명 '선교사'들만의 전유물이거나, 조직적인 구조를 갖춘 선교단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선교적 교회론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회나 선교단체의 조직이나 구조보다 사람의 마음이다. 과거 서구에서 팀을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한 나머지 본질인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 경향이 있다. 조직을 만들어 놓고 도리어 그 권위를 가지고 싸우는 실수를 범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구조보다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긴다.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예수님과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건강한 선교 구조를 만들기 위해 모달리티(교단)에도 소달리티(선교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선교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모달리티 사역자와 소달리티 사역자가 상호 전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역을 공유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종전 모달리티-소달리티간 분리와 분열을 넘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선교적 방법론을 배워나가고, 21세기 각 지역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야 한다."

(끝)

선교사역 3단계 교회개척, 제자훈련, 지도자양성으로 재생산 확장 선교지 선교사역 종류,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적합한 선교사팀 배치

선교는 전문적인 소달리티로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역시 선교단체가 안고 있는 선교사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고, 이민교회는 아직 교단선교가 미미한 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 선교 상황의 문제점들을 타개하고 선교자원의 집중과 미개척지역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체"를 이민교회에 제안해봅니다.

a. 선교자원의 집중을 위해
선교사 개인사역과 개교회 사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교지원, 즉 선교사 후보와 선교비의 공동 모금과 공동 사용이 필요합니다. C&MA 교단은 소속교회가 해마다 선교대회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선교사의 은사와 경험에 따라 선교사를 적절한 선교지의 사역팀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개인사역이라는 것은 없고, 특정 선교지의 선교사역팀에 소속하여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선교지와 선교사역의 종류를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선교사들을 팀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본부는 선교지 별로 사역목적과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선교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b. 교회의 공동사역을 통한 프런티어 선교를 위해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교회주의의 유혹

스 등 특수선교팀
▷선교지 입양과 공동 파송: △약 20-30개의 교회가 1개 선교지를 입양하여 선교팀을 공동으로 훈련하고 파송함 △선교본부의 코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회가 방문하고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선교지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함 △연례 연합선교대회에 1)선교지의 선교팀들과 2)교회의 리더십과 선교헌신자들 매치하여 1)선교지에 필요한 선교자원 동원과 2)교회의 지속적인 선교헌신을 개발함.

c.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예외가 있겠지만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신속하고 편

하나님의 뜻은 현실적으로 성취하기가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역사부터 구원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도 당시 제자들의 현실이나 2천년 교회역사를 통해 볼 때에도 현실은 언제나 그 성취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해 항상 성취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미개척/미전도종족은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과 종족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완성 과업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

111년 전, 한인이민역사 시작과 함께 이 땅에 이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북미의 50개 주에 흩어져 있는 4,500개라는 교회의 숫자,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미국의 현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2세 우리 자녀세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으로 이민 와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다민족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미개척/미전도 종족들과 역사적으로 그들 속에, 또 가까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인들과 이민교회들.....

이제는 이민교회 가운데서도 프런티어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체가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마

세계 한인 기독교 총 연합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뉴욕(New York) 포럼

2015년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회에서는 세계 제2차대전 종전 70주년의 해를 맞으며 인류의 평화염원을 앞당기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세계 각처의 분쟁을 종식하는 평화와 상생의 기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뉴욕 포럼은 세계 한민족 크리스찬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대안제시와 분야별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입니다. 바라는 이번이 가지는 포럼을 통해 수렴된 좋은 의견들이 6천만 한민족의 통일 노력을 북돋워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15년 1월 13일(화) 오전 11시 30분 부터
*신년하례 오전 11시30분 *점심식사 정오 12시
*포럼예배 오후 1시 *포럼 오후 1시40분
- 장소** International Christian Vision Center(ICVC) 뉴욕성결교회
333 Arden Avenue, Staten Island, NY 10312
- 포럼좌장** 우순태 박사[평화통일포럼위원장]
- 연락처** (718)NEW-HOPE(637-4673), (718)948-0339
(718)948-0292, (718)948-2039, (917)597-2488

- 발제자** 1. 이규영 박사 통일을 위한 세계한인교회의 전략적 접근
- 2. 여문영 박사 통일운동의 신학적 근거
- 3. 박영환 박사 통일을 위한 세계한인교회의 국제적 역할
- 4. 구춘서 박사 세계한인기독교 총연합회와 정부정책의 협력 모색